

'91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結果 分析

姜東植* · 金斗和**

目 次

- I. 序 言
- II. 調查方法 및 內容
 - 1. 調查對象
 - 2. 調查內容
 - 3. 調查節次
 - 4. 資料處理
- III. 結果 및 分析
 - 1. 人的事項
 - 2. 家族事項
 - 3. 經濟事項
 - 4. 家族 및 對人關係
 - 5. 大學 및 學科 지원동기
 - 6. 大學生活
 - 7. 卒業後의 計劃
- IV. 結 論

I. 序 言

現代教育은 학생들이 인격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全人教育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이 학문연구, 인격도야와 더불어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때 까지 타의에 의하여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대학에 들어온 이상 학생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책임지어야 하는 자율인으로서 인격도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생활환경, 가치관을 파악 4년간의 대학생활을 풍요로이 마칠 수 있도록 학교당국은 물론 교수 등 대학구성원이 힘써야 할 것이다.

* 學生生活研究所 調查研究部長, (助教授, 行政學)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報道部長, (專任講師 有機化學)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신입생의 인적배경, 가정환경, 대학생활, 교수와의 관계, 대인관계, 과외활동 및 부직활동,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진로 관계 등 대학생활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의 지표를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을 뒀다.

II. 調查內容 및 方法

1. 調查의 目的

본 조사는 1991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배경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학생지도에 있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및 학생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2. 調查의 內容

본 조사는 본인의 배경을 비롯한 가정환경, 대학선택의 준거, 대학생활, 교수와의 관계, 대인관계, 과외활동 및 부직활동,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진로관계,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 등 모두 10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1) 인적 배경

성별, 연령, 출생순위, 본적지, 성장지, 입학후 거주지, 설립별 출신고 및 계열, 재수 여부 및 동기, 건강상태, 음주·흡연 여부, 자긍심, 종교, 목표에 대한 성취 욕구.

2) 가정 환경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연령 및 학력, 부모 생존 여부, 가족수, 가족의 거주지, 주거형태, 보호자의 직업, 가정의 월수입 및 경제수준, 부모의 종교,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 가정의 문제점, 문제의 의논 대상, 부모와의 견해차.

3) 대학 및 학과 선택의 준거

대학 진학의 목적, 본 대학 지원 동기 및 긍지심, 학과 선택요인,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학과 선택시기, 학과 선택의 만족도.

4) 대학 생활

대학생활에의 적응 여부, 대학생활 중의 어려움,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대학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 어학훈련계획 및 방법.

5) 교수와의 관계

교수와의 인간관계 및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6) 대인 관계

친한 친구수, 원하는 친구 유형, 대인관계 만족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이성교제의 경험 및 문제, 자기 문제의 논의 대상.

7) 과외활동 및 부직활동

씨클활동, 독서활동, 학비 조달 방법,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원하는 이유.

8)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회문제에 대한 견해, 제주지역의 당면 문제,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견해, 세대차에 대한 관점, 사회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태도.

9) 진로 관계

졸업후의 계획, 직업선택의 기준, 희망 직업,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10) 학생생활연구소에 대한 기대

상담 여부, 원하는 상담내용.

3. 調査의 方法

- 1) 본 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71개의 문항으로 구성·조사되었다.
 - 2) 설문조사는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1991년 2월 27일)에 이루어졌고 동시에 이를 회수하였다. 신입생 1,880명중 1,683명이 응답하였는데 전체적으로 90%의 회수율을 보였다(別表-1).
- 8개 대학의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別表-2).

(別表-1) 大學別 設問紙 回收率

대 학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320	288	90%
법 정 대 학	140	114	81%
경 상 대 학	260	236	91%
사 범 대 학	110	99	90%
농 과 대 학	240	216	90%
해 양 과 학 대 학	190	181	95%
자 연 과 학 대 학	260	208	80%
공 과 대 학	360	341	95%
계	1,880	1,683	90%

(別表-2) 應答者의 大學別 性別 構成比

대 학	남	여	무 응 답	계
인 문 대 학	52	236		288
법 정 대 학	66	47	1	114
경 상 대 학	110	125	1	236
사 범 대 학	17	82		99
농 과 대 학	157	59		216
해 양 과 학 대 학	153	28		181
자 연 과 학 대 학	72	135	1	208
공 과 대 학	232	109		341
계	859	821	3	1,683

3) 수집된 응답지 1,683매는 문항별, 단과대학별, 성별로 각기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각 항의 표에서 무응답자는 제외·처리되었다.

4. 資料處理

회수된 자료인 設問應答紙 1,683매의 처리는 本校 電子計算所에 의뢰하여 일반적인 통계처리과정을 거쳐 항목별, 단과대학별로 구분 百分率로 算出했다.

Ⅲ. 結果 및 分析

1. 人的背景

1) 성 별

신입생의 男·女학생의 구별은〈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지 응답자 1,683명(신입생 총 1880명, 회수율 90%)중 남학생이 51.1%인 859명이며, 여학생은 48.9%인 821명으로 나타나 여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 비율보다 많은 대학은 師範大學이 82.8%로 제일 높고 다음이 人文大學으로 81.9%, 自然大學 65.2% 순이다.

〈表-1〉 대학별 성별구성 인원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		52 (18.1)	66 (58.4)	110 (46.8)	17 (17.2)	157 (72.7)	153 (84.5)	72 (34.8)	232 (68.0)	859 (51.1)
여		236 (81.9)	47 (41.6)	125 (53.2)	82 (82.8)	59 (27.3)	28 (15.5)	135 (65.2)	109 (32.0)	821 (48.9)

2) 학생의 연령

신입생의 연령은 만 18세가 과반수 이상인 62.3%(1046명)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19세 21.9%(368명), 17세 6.8%(115명) 순이다.〈表-2 참조〉

〈表-2〉 신입생의 연령분포

항 목	대 학									남	여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만 16세 이하	1 (0.3)	0 (0.0)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2 (0.1)	2 (0.2)	0 (0.0)
만 17세	21 (7.3)	3 (2.6)	10 (4.3)	8 (8.1)	4 (1.9)	6 (3.3)	7 (3.4)	20 (5.9)	79 (4.7)	24 (2.8)	54 (6.6)
만 18세	162 (56.3)	64 (56.1)	149 (63.4)	62 (62.6)	132 (61.4)	111 (61.7)	147 (70.7)	219 (64.4)	1,046 (62.3)	488 (57.0)	558 (67.9)
만 19세	61 (21.2)	19 (16.7)	55 (23.4)	22 (22.2)	53 (24.7)	48 (26.7)	42 (20.2)	68 (20.0)	368 (21.9)	204 (23.8)	164 (20.0)
만 20세	21 (7.3)	12 (10.5)	15 (6.4)	5 (5.1)	17 (7.9)	12 (6.7)	9 (4.3)	24 (7.1)	115 (6.8)	86 (10.0)	29 (3.5)
만 21세	11 (3.8)	6 (5.3)	0 (0.0)	0 (0.0)	5 (2.3)	1 (0.6)	2 (1.0)	6 (1.8)	31 (1.8)	22 (2.6)	9 (1.1)
만 22세	3 (1.0)	0 (0.0)	3 (1.3)	2 (2.0)	2 (0.9)	0 (0.0)	0 (0.0)	1 (0.3)	11 (0.7)	6 (0.7)	5 (0.6)
만 23세	3 (1.0)	0 (0.0)	1 (0.4)	0 (0.0)	1 (0.5)	0 (0.0)	0 (0.0)	2 (0.6)	7 (0.4)	5 (0.6)	2 (0.2)
만 24세	3 (1.0)	4 (3.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 (0.4)	7 (0.8)	0 (0.0)
만 25세 이상	2 (0.7)	6 (5.3)	2 (0.9)	0 (0.0)	1 (0.5)	1 (0.6)	1 (0.5)	0 (0.0)	13 (0.8)	12 (1.4)	1 (0.1)

3) 출생순위

출생순위는 첫번째가 28.1%(471명)이며, 두번째 20.6%(345명), 세번째 19.2%(322명) 순이다. 네번째 이하도 32.1%로 나타나 가족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表-3〉

〈表-3〉 출생순위

항 목	대 학									남	여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첫 째	91 (31.6)	43 (37.7)	55 (23.3)	35 (36.1)	56 (26.2)	46 (25.4)	61 (29.5)	84 (24.8)	471 (28.1)	221 (25.8)	250 (30.5)
둘 째	54 (18.8)	19 (16.7)	49 (20.8)	26 (26.8)	40 (18.7)	40 (22.1)	38 (18.4)	79 (23.3)	345 (20.6)	181 (21.2)	163 (19.9)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셋	책	50 (17.4)	13 (11.4)	44 (18.6)	15 (15.5)	50 (23.4)	39 (21.5)	33 (15.9)	78 (23.0)	322 (19.2)	177 (20.7)	146 (17.8)
넷	책	38 (13.2)	14 (12.3)	46 (19.5)	11 (11.3)	35 (16.4)	22 (12.2)	33 (15.9)	38 (11.2)	237 (14.1)	120 (14.0)	117 (14.3)
다	섯	53 (18.4)	25 (21.9)	42 (17.8)	10 (10.3)	33 (15.4)	33 (18.2)	40 (19.3)	60 (17.7)	296 (17.7)	153 (17.9)	142 (17.3)
여	섯	1 (0.3)	0 (0.0)	0 (0.0)	0 (0.0)	0 (0.0)	1 (0.6)	1 (0.5)	0 (0.0)	3 (0.2)	2 (0.2)	1 (0.1)
일	곱	1 (0.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0 (0.0)	1 (0.1)
여	덟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1 (0.1)	1 (0.1)	0 (0.0)
아	홉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열	책 이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본 적 지

신입생들의 본적지는 <表-4>에서 보는 바와같이 濟州道 출신이 90.4%, 타도 출신 9.6%를 보이고 있으며, 濟州道 출신중 濟州市 28.7%(474명), 西歸浦市 12.0%(198명) 涯月邑 8.3%(137명), 翰林邑 7.3%(120명) 순이다. 他道출신 중에는 光州·全南이 2.7%(44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釜山, 慶南이 1.8%(29명), 大田, 忠南이 1.5%(25명)이다.

〈表-4〉 본 적 지

항 목 \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75 (27.0)	28 (25.0)	70 (30.0)	28 (28.3)	45 (20.9)	54 (30.5)	59 (28.6)	115 (34.4)	474 (28.7)	245 (29.0)	228 (28.2)
서 귀 포 시	34 (12.2)	18 (16.1)	24 (10.3)	14 (14.1)	27 (12.6)	12 (6.8)	35 (17.0)	34 (10.2)	198 (12.0)	79 (9.3)	120 (14.8)
남 원 읍	10 (3.6)	9 (8.0)	8 (3.4)	5 (5.1)	12 (5.6)	13 (7.3)	9 (4.4)	16 (4.8)	82 (5.0)	33 (3.9)	48 (5.9)
대 정 읍	19 (6.8)	4 (3.6)	14 (6.0)	4 (4.0)	11 (5.1)	5 (2.8)	11 (5.3)	24 (7.2)	92 (5.6)	45 (5.3)	47 (5.8)
성 산 읍	9 (3.2)	3 (2.7)	12 (5.2)	3 (3.0)	10 (4.7)	5 (2.8)	12 (5.8)	12 (3.6)	66 (4.0)	35 (4.1)	31 (3.8)
안 덕 면	7 (2.5)	3 (2.7)	7 (3.0)	5 (5.1)	6 (2.8)	3 (1.7)	7 (3.4)	7 (2.1)	45 (2.7)	26 (3.1)	19 (2.3)
표 선 면	5 (1.8)	2 (1.8)	8 (3.4)	3 (3.0)	6 (2.8)	0 (0.0)	3 (1.5)	9 (2.7)	36 (2.2)	16 (1.9)	20 (2.5)
구 좌 읍	13 (4.7)	6 (5.4)	9 (3.9)	4 (4.0)	21 (9.8)	10 (5.6)	11 (5.3)	10 (3.0)	84 (5.1)	46 (5.4)	38 (4.7)
애 원 읍	20 (7.2)	10 (8.9)	22 (9.4)	10 (10.1)	8 (3.7)	21 (11.9)	17 (8.3)	29 (8.7)	137 (8.3)	76 (9.0)	61 (7.5)
조 천 읍	15 (5.4)	7 (6.3)	10 (4.3)	4 (4.0)	11 (5.1)	8 (4.5)	4 (1.9)	14 (4.2)	73 (4.4)	50 (5.9)	23 (2.8)
추 자 면	0 (0.0)	0 (0.0)	1 (0.4)	0 (0.1)	1 (0.5)	1 (0.6)	1 (0.5)	1 (0.3)	5 (0.3)	4 (0.5)	1 (0.1)
한 경 면	15 (5.4)	4 (3.6)	13 (5.6)	5 (5.1)	11 (5.1)	2 (1.1)	10 (4.9)	12 (3.6)	72 (4.4)	33 (3.9)	39 (4.8)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한 립 읍	20 (7.2)	10 (8.9)	14 (6.0)	9 (9.1)	19 (8.8)	16 (9.0)	15 (7.3)	17 (5.1)	120 (7.3)	56 (6.6)	65 (8.0)
우 도 면	0 (0.0)	0 (0.0)	0 (0.0)	1 (1.0)	2 (0.9)	1 (0.6)	0 (0.0)	2 (0.6)	6 (0.4)	5 (0.5)	1 (0.1)
서 울	8 (2.9)	0 (0.0)	3 (1.3)	1 (1.0)	3 (1.4)	2 (1.1)	0 (0.0)	5 (1.5)	22 (1.3)	13 (1.5)	9 (1.1)
인 천 · 경 기	2 (0.7)	0 (0.0)	0 (0.0)	1 (1.0)	3 (1.4)	4 (2.3)	1 (0.5)	1 (0.3)	11 (0.7)	8 (0.9)	3 (0.4)
강 원	1 (0.4)	1 (0.9)	0 (0.0)	0 (0.0)	1 (0.5)	1 (0.6)	0 (0.0)	0 (0.0)	4 (0.2)	1 (0.1)	3 (0.4)
충 북	0 (0.0)	0 (0.0)	1 (0.4)	0 (0.0)	1 (0.5)	1 (0.6)	1 (0.5)	2 (0.6)	6 (0.4)	2 (0.2)	4 (0.5)
대 전 · 충 남	6 (2.2)	2 (1.8)	3 (1.3)	0 (0.0)	3 (1.4)	4 (2.3)	1 (0.5)	6 (1.8)	25 (1.5)	16 (1.9)	9 (1.1)
전 북	2 (0.7)	1 (0.9)	1 (0.4)	0 (0.0)	1 (0.5)	0 (0.0)	1 (0.5)	1 (0.3)	7 (0.4)	4 (0.5)	3 (0.4)
광 주 · 전 남	9 (3.2)	2 (1.8)	6 (2.6)	0 (0.0)	3 (1.4)	8 (4.5)	4 (1.9)	12 (3.6)	44 (2.7)	24 (2.8)	20 (2.5)
대 구 · 경 북	3 (1.1)	1 (0.9)	3 (1.3)	0 (0.0)	5 (2.3)	0 (0.0)	2 (1.0)	1 (0.3)	15 (0.9)	6 (0.7)	9 (1.1)
부 산 · 경 남	5 (1.8)	1 (0.9)	3 (1.3)	3 (3.0)	5 (2.3)	6 (3.4)	2 (1.0)	4 (1.2)	29 (1.8)	21 (2.5)	8 (1.0)
해 외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5) 성 장 기

신입생들의 성장지는 濟州市 46.4%(767명), 西歸浦市 13.8%(228명), 涯月邑 5.0%(82명) 순으로

本籍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他道학생의 경우도 本籍地만 육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5 참조>

<表-5> 성 장 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129 (46.6)	51 (45.1)	105 (45.1)	46 (46.5)	72 (33.5)	83 (46.9)	97 (46.9)	184 (55.3)	767 (46.4)	406 (48.0)	362 (44.7)
서 귀 포 시		41 (14.8)	17 (15.0)	29 (12.4)	14 (14.1)	33 (15.3)	15 (8.5)	42 (20.3)	37 (11.1)	228 (13.8)	82 (9.7)	146 (18.0)
남 원 읍		10 (3.6)	7 (6.2)	9 (3.9)	4 (4.0)	13 (6.0)	10 (5.6)	9 (4.3)	15 (4.5)	77 (4.7)	31 (3.7)	45 (5.6)
대 정 읍		13 (4.7)	3 (2.7)	11 (4.7)	4 (4.0)	9 (4.2)	6 (3.4)	9 (4.3)	14 (4.2)	69 (4.2)	36 (4.3)	33 (4.1)
성 산 읍		9 (3.2)	4 (3.5)	11 (4.7)	2 (2.0)	8 (3.7)	4 (2.3)	9 (4.3)	10 (3.0)	57 (3.4)	24 (2.8)	33 (4.1)
안 덕 면		6 (2.2)	1 (0.9)	5 (2.1)	2 (2.0)	5 (2.3)	1 (0.6)	5 (2.4)	8 (2.4)	33 (2.0)	21 (2.5)	12 (1.5)
포 선 면		4 (1.4)	2 (1.8)	7 (3.0)	3 (3.0)	5 (2.3)	1 (0.6)	1 (0.5)	5 (1.5)	28 (1.7)	10 (1.2)	18 (2.2)
구 좌 읍		7 (2.5)	4 (3.5)	8 (3.4)	2 (2.0)	18 (8.4)	8 (4.5)	7 (3.4)	6 (1.8)	60 (3.6)	35 (4.1)	25 (3.1)
애 월 읍		13 (4.7)	10 (8.8)	13 (5.6)	8 (8.1)	5 (2.3)	11 (6.2)	10 (4.8)	12 (3.6)	82 (5.0)	44 (5.2)	38 (4.7)
조 천 읍		11 (4.0)	2 (1.8)	7 (3.0)	3 (3.0)	6 (2.8)	6 (3.4)	0 (0.0)	4 (1.2)	39 (2.4)	24 (2.8)	15 (1.9)

항 목	대 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인문 대학	법정 대학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추 자 면	0 (0.0)	0 (0.0)	1 (0.4)	0 (0.0)	0 (0.0)	1 (0.6)	0 (0.0)	1 (0.3)	3 (0.2)	3 (0.4)	0 (0.0)
한 경 면	8 (2.9)	3 (2.7)	5 (2.1)	4 (4.0)	7 (3.3)	0 (0.0)	4 (1.9)	6 (1.8)	37 (2.2)	18 (2.1)	19 (2.3)
한 립 읍	10 (3.6)	5 (4.4)	11 (4.7)	6 (6.1)	13 (6.0)	10 (5.6)	7 (3.4)	19 (5.7)	81 (4.9)	42 (5.0)	39 (4.8)
우 도 면	0 (0.0)	0 (0.0)	0 (0.0)	1 (1.0)	1 (0.5)	1 (0.6)	0 (0.0)	0 (0.0)	3 (0.2)	2 (0.2)	1 (0.1)
서 울	5 (1.8)	0 (0.0)	4 (1.7)	0 (0.0)	5 (2.3)	5 (2.8)	2 (1.0)	4 (1.2)	25 (1.5)	17 (2.0)	8 (1.0)
인 천 · 경 기	2 (0.7)	0 (0.0)	0 (0.0)	0 (0.0)	2 (0.9)	1 (0.6)	1 (0.5)	1 (0.3)	7 (0.4)	5 (0.6)	2 (0.2)
강 원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0 (0.0)	1 (0.3)	2 (0.1)	2 (0.2)	0 (0.0)
충 북	0 (0.0)	0 (0.0)	1 (0.4)	0 (0.0)	0 (0.0)	1 (0.6)	1 (0.5)	1 (0.3)	4 (0.2)	2 (0.2)	2 (0.2)
대 전 · 충 남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1 (0.1)	1 (0.1)	0 (0.1)
전 북	2 (0.7)	1 (0.9)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4 (0.2)	3 (0.4)	1 (0.1)
광 주 · 전 남	3 (1.1)	2 (1.8)	1 (0.4)	0 (0.0)	1 (0.5)	4 (2.3)	1 (0.5)	4 (1.2)	16 (1.0)	12 (1.4)	4 (0.5)
대 구 · 경 북	1 (0.4)	0 (0.0)	1 (0.4)	0 (0.0)	3 (1.4)	0 (0.0)	1 (0.5)	0 (0.0)	6 (0.4)	3 (0.4)	3 (0.4)
부 산 · 경 남	3 (1.1)	1 (0.9)	3 (1.3)	0 (0.0)	9 (4.2)	6 (3.4)	1 (0.5)	1 (0.3)	24 (1.5)	21 (2.5)	3 (0.4)
해 외	0 (0.0)	0 (0.0)	0 (0.0)	0 (0.0)	0 (0.0)	1 (0.6)	0 (0.0)	0 (0.0)	1 (0.1)	1 (0.1)	0 (0.0)

6) 입학 후 주거 형태

신입생들의 입학 후 주거는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가 68.8%(1,144명), 자취 20%(332명), 친척집 5.2%(86명)으로 나타났는데 자가가 많은 이유는 濟州道の 경우 전 지역이 濟州市를 기점으로 1시간대 거리(버스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신입생들의 입학후 주거 형태는 가족의 주거형태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

<表-6> 입학후 주거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 가		206 (71.8)	76 (67.9)	168 (73.0)	63 (63.6)	122 (57.8)	130 (72.6)	138 (67.6)	241 (70.7)	1,144 (68.8)	602 (70.5)	543 (67.1)
하 숙		2 (0.7)	4 (3.6)	1 (0.4)	0 (0.0)	5 (2.4)	4 (2.2)	2 (1.0)	12 (3.5)	30 (1.8)	24 (2.8)	6 (0.7)
자 취		58 (20.2)	21 (18.8)	47 (20.4)	30 (30.3)	50 (23.7)	18 (10.1)	51 (25.0)	57 (16.7)	332 (20.0)	122 (14.3)	209 (25.8)
친 척 집		19 (6.6)	3 (2.7)	6 (2.6)	4 (4.0)	13 (6.2)	12 (6.7)	5 (2.5)	24 (7.0)	86 (5.2)	42 (4.9)	44 (5.4)
기 숙 사		1 (0.3)	6 (5.4)	4 (1.7)	1 (1.0)	18 (8.5)	11 (6.1)	3 (1.5)	6 (1.8)	50 (3.0)	50 (5.9)	0 (0.0)
기 타		1 (0.3)	2 (1.8)	4 (1.7)	1 (1.0)	3 (1.4)	4 (2.2)	5 (2.5)	1 (0.3)	21 (1.3)	14 (1.6)	7 (0.9)

7) 대학 재학중 거주 예정지

신입생들이 대학재학중 거주지는 앞의 6)항에서 지적한 이유로, 濟州市와 西歸浦市 등지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닐 것으로 나타났다. <表-7 참조> (이항 역시 가족의 거주지와 깊은 관계에 있음)

<表-7> 대학재학중 거주 예정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세 주 시	219 (79.6)	87 (77.0)	183 (79.2)	84 (84.8)	165 (77.1)	128 (72.3)	163 (78.7)	283 (85.0)	1,312 (79.6)	659 (78.5)	653 (80.7)
서 귀 포 시	24 (8.7)	8 (7.1)	17 (7.4)	4 (4.0)	18 (8.4)	13 (7.3)	22 (10.6)	21 (6.3)	127 (7.7)	51 (6.1)	76 (9.4)
남 원 읍	2 (0.7)	0 (0.0)	2 (0.9)	0 (0.0)	2 (0.9)	4 (2.3)	2 (1.0)	2 (0.6)	14 (0.8)	5 (0.6)	9 (1.1)
대 정 읍	4 (1.5)	1 (0.9)	1 (0.4)	1 (1.0)	5 (2.3)	3 (1.7)	1 (0.5)	3 (0.9)	19 (1.2)	14 (1.7)	5 (0.6)
성 산 읍	0 (0.0)	0 (0.0)	0 (0.0)	0 (0.0)	1 (0.5)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안 덕 면	2 (0.7)	1 (0.9)	3 (1.3)	2 (2.0)	0 (0.0)	0 (0.0)	1 (0.5)	3 (0.9)	12 (0.7)	6 (0.7)	6 (0.7)
표 선 면	1 (0.4)	0 (0.0)	1 (0.4)	0 (0.0)	1 (0.5)	1 (0.6)	1 (0.5)	0 (0.0)	5 (0.3)	2 (0.2)	3 (0.4)
구 좌 읍	0 (0.0)	3 (2.7)	4 (1.7)	0 (0.0)	4 (1.9)	4 (2.3)	4 (1.9)	2 (0.6)	21 (1.3)	16 (1.9)	5 (0.6)
애 월 읍	8 (2.9)	8 (7.1)	9 (3.9)	3 (3.0)	4 (1.9)	9 (5.1)	9 (4.3)	8 (2.4)	58 (3.5)	36 (4.3)	22 (2.7)
조 천 읍	10 (3.6)	3 (2.7)	7 (3.0)	3 (3.0)	6 (2.8)	7 (4.0)	1 (0.5)	6 (1.8)	43 (2.6)	26 (3.1)	17 (2.1)
추 자 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한 경 면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한 름 읍	4 (1.5)	2 (1.8)	4 (1.7)	2 (2.0)	7 (3.3)	7 (4.0)	3 (1.4)	5 (1.5)	34 (2.1)	22 (2.6)	12 (1.5)
우 도 면	0 (0.0)	0 (0.0)	0 (0.0)	0 (0.0)	1 (0.5)	1 (0.6)	0 (0.0)	0 (0.0)	2 (0.1)	1 (0.1)	1 (0.1)

8) 출신 고등학교 계열 및 설립별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계열은 대부분인 96.4(1621명)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타났다.

또한 설립별로는 〈表-9〉에서와 같이 사립고등학교 출신이 51.9%(867명), 공립 27.2%(455명), 국립 20.7%(346명) 순이다.

〈表-8〉 출신고등학교 계열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인 문 계	267 (92.7)	112 (98.2)	230 (97.5)	98 (99.0)	206 (95.4)	178 (98.3)	202 (97.1)	328 (96.5)	1,621 (96.4)	818 (95.2)	802 (97.6)
공 업 계	3 (1.0)	1 (0.9)	2 (0.8)	0 (0.0)	1 (0.5)	0 (0.0)	0 (0.0)	1 (0.3)	8 (0.5)	7 (0.8)	1 (0.1)
상 업 계	14 (4.9)	1 (0.9)	3 (1.3)	0 (0.0)	4 (1.9)	2 (1.1)	4 (1.9)	7 (2.1)	35 (2.1)	21 (2.4)	14 (1.7)
농 업 계	1 (0.3)	0 (0.0)	0 (0.0)	0 (0.0)	3 (1.4)	0 (0.0)	1 (0.5)	0 (0.0)	5 (0.3)	4 (0.5)	1 (0.1)
수 산 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점 정 고 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1 (0.3)	2 (0.1)	2 (0.2)	0 (0.0)
기 타	3 (1.0)	0 (0.0)	1 (0.4)	1 (1.0)	2 (0.9)	1 (0.6)	0 (0.0)	3 (0.9)	11 (0.7)	7 (0.8)	4 (0.5)

〈表-9〉 출신고등학교 설립별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국 립	56 (19.5)	24 (21.4)	39 (16.5)	20 (20.2)	65 (30.2)	24 (13.3)	54 (26.0)	64 (19.2)	346 (20.7)	162 (18.9)	184 (22.6)
공 립	83 (28.9)	24 (21.4)	82 (34.7)	31 (31.3)	54 (25.1)	58 (32.0)	41 (19.7)	82 (24.6)	455 (27.2)	235 (27.4)	218 (26.8)
사 립	146 (50.9)	64 (57.1)	115 (48.7)	48 (48.5)	96 (44.7)	99 (54.7)	112 (53.8)	187 (56.0)	867 (51.9)	458 (53.4)	410 (50.4)
기 타	2 (0.7)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1 (0.3)	4 (0.2)	3 (0.3)	1 (0.1)

9)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 여부 및 동기

신입생 대부분인 78.5%(1316명)가 정상적으로 대학에 들어온 반면, 1년 재수 16.2%(272), 2년 재수 4.1%(68명) 이다. <表-10 참조>

재수를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表-11>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表-10> 대학 입학을 위한 재수 여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다.	210 (73.2)	77 (68.1)	184 (78.6)	81 (82.7)	171 (79.2)	144 (80.0)	176 (84.6)	273 (80.3)	1,316 (78.5)	616 (71.9)	699 (85.5)
1년 재수	54 (18.8)	25 (22.1)	42 (17.9)	15 (15.3)	31 (14.4)	32 (17.8)	23 (11.1)	50 (14.7)	272 (16.2)	169 (19.7)	103 (12.6)
2년 재수	18 (6.3)	6 (5.3)	6 (2.6)	1 (1.0)	12 (5.6)	3 (1.7)	7 (3.4)	15 (4.4)	68 (4.1)	53 (6.2)	15 (1.8)
3년 이상 재수	5 (1.7)	5 (4.4)	2 (0.9)	1 (1.0)	2 (0.9)	1 (0.6)	2 (1.0)	2 (0.6)	20 (1.2)	19 (2.2)	1 (0.1)

<表-11> 재수하게된 동기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바라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32 (39.5)	7 (19.4)	16 (28.6)	9 (52.9)	17 (36.2)	6 (15.8)	10 (28.6)	29 (42.0)	126 (33.2)	83 (32.4)	43 (35.0)
실력이 모자라서	29 (35.8)	15 (41.7)	20 (35.7)	1 (5.9)	19 (40.4)	19 (50.0)	11 (31.4)	28 (40.6)	142 (37.5)	97 (37.9)	45 (36.6)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2 (2.5)	4 (11.1)	4 (7.1)	2 (11.8)	1 (2.1)	4 (10.5)	1 (2.9)	0 (0.0)	18 (4.7)	14 (5.5)	4 (3.3)
기 타	18 (22.2)	10 (27.8)	16 (28.6)	5 (29.4)	10 (21.3)	9 (23.7)	13 (37.1)	12 (17.4)	93 (24.5)	62 (24.2)	31 (25.2)

10)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는 57.9%(965명)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종교를 가진 학생중에는 불교 16.1%(269명), 기독교 15.4%(257명), 천주교 8.3%(138명) 순이다.

<表-11 참조>

<表-11> 본인의 종교

항 목	대 학									전체	남	여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불 교	33 (11.5)	16 (14.3)	39 (16.8)	16 (16.3)	56 (26.3)	35 (19.4)	28 (13.5)	46 (13.6)	269 (16.1)	152 (17.8)	117 (14.4)	
천 주 교	30 (10.5)	7 (6.3)	11 (4.7)	10 (10.2)	12 (5.6)	17 (9.4)	22 (10.6)	29 (8.6)	138 (8.3)	56 (6.6)	83 (10.2)	
기 독 교	63 (22.0)	18 (16.1)	38 (16.4)	9 (9.2)	26 (12.2)	22 (12.2)	34 (16.3)	47 (13.9)	257 (15.4)	125 (14.7)	131 (16.1)	
유 교	0 (0.0)	1 (0.9)	0 (0.0)	1 (1.0)	0 (0.0)	5 (2.8)	0 (0.0)	1 (0.3)	8 (0.5)	8 (0.9)	0 (0.0)	
천 도 교	0 (0.0)	1 (0.9)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1 (0.1)	1 (0.1)	
원 불 교	0 (0.0)	0 (0.0)	1 (0.4)	0 (0.0)	1 (0.5)	1 (0.6)	0 (0.0)	2 (0.6)	5 (0.3)	3 (0.4)	2 (0.2)	
기 타	5 (1.7)	1 (0.9)	1 (0.4)	2 (2.0)	5 (2.3)	3 (1.7)	2 (1.0)	4 (1.2)	23 (1.4)	12 (1.4)	11 (1.4)	
종 교 없 음	155 (54.2)	68 (60.7)	141 (60.8)	60 (61.2)	113 (53.1)	97 (53.9)	122 (58.7)	209 (61.8)	965 (57.9)	496 (58.1)	469 (57.6)	

11) 신체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6.6%(1611명)가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12> 신체적 건강상태

항 목	대 학									전체	남	여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건강하다	150 (52.6)	59 (52.7)	117 (50.2)	63 (63.6)	113 (52.8)	97 (53.9)	110 (53.4)	177 (52.2)	886 (53.1)	438 (51.4)	449 (55.0)	
보통이다	124 (43.5)	46 (41.1)	108 (46.4)	33 (33.3)	95 (44.4)	79 (43.9)	92 (44.7)	148 (43.7)	725 (43.5)	378 (44.4)	346 (42.4)	
허약하다	11 (3.9)	7 (6.3)	8 (3.4)	3 (3.0)	6 (2.8)	4 (2.2)	4 (1.9)	14 (4.1)	57 (3.4)	36 (4.2)	21 (2.6)	

12) 음주 및 흡연 여부

〈表-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중 51.6%(857명)가 술을 마신다. 48.4%(803명)가 안마신다로 나타나 음주 비율은 반반이다. 특히 여학생의 음주도 26.2%(211명)을 보이고 있다.

담배는 78.0%(1301명)가 피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表-14〉

이는 우리 사회가 걱정하고 있는 상당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담배도 22.0%(336명)가 피우고 있다고 응답했다.

〈表-13〉 음주 여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마신다	103 (36.7)	63 (55.8)	107 (47.1)	35 (35.7)	133 (62.4)	132 (73.3)	82 (39.4)	202 (59.4)	857 (51.6)	646 (75.6)	211 (26.2)
안 마신다	178 (63.3)	50 (44.2)	120 (52.9)	63 (64.3)	80 (37.6)	48 (26.7)	126 (60.6)	138 (40.6)	803 (48.4)	208 (24.4)	595 (73.8)

〈表-14〉 흡연 여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피운다	29 (10.2)	29 (25.9)	43 (18.5)	6 (6.1)	79 (37.1)	69 (38.3)	27 (13.0)	84 (24.7)	336 (22.0)	365 (42.7)	1 (0.1)
안 피운다	254 (89.8)	83 (74.1)	189 (81.5)	93 (93.9)	134 (62.9)	111 (61.7)	181 (87.0)	256 (75.3)	1,301 (78.0)	489 (57.3)	811 (99.9)

13) 자신에 대한 자긍심

신입생들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은 <表-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이다가 61.0%(1,009명)로 나타났다. 자랑스럽다 26.4%(437명), 대단히 자랑스럽다 8.1%(134명)를 보여 남·여 학생이 의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15> 자신에 대한 자긍심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단히 자랑스럽다	19 (6.8)	10 (8.8)	17 (7.5)	8 (8.2)	21 (9.9)	15 (8.4)	13 (6.3)	31 (9.2)	134 (8.1)	101 (11.9)	32 (4.0)								
자랑스럽다	60 (21.4)	30 (26.5)	51 (22.4)	39 (39.8)	65 (30.7)	45 (25.1)	53 (25.6)	94 (27.9)	437 (26.4)	238 (28.1)	199 (24.7)								
보통이다	188 (67.1)	68 (60.2)	153 (67.1)	46 (46.9)	116 (54.7)	107 (59.8)	133 (64.3)	198 (58.8)	1,009 (61.0)	459 (54.1)	550 (68.3)								
부끄럽다	12 (4.3)	5 (4.4)	6 (2.6)	4 (4.1)	7 (3.7)	12 (6.7)	6 (2.9)	10 (3.0)	62 (3.7)	41 (4.8)	21 (2.6)								
대단히 부끄럽다	1 (0.4)	0 (0.0)	1 (0.4)	1 (1.0)	3 (1.4)	0 (0.0)	2 (1.0)	4 (1.2)	12 (0.7)	9 (1.1)	3 (0.4)								

14) 목표와 소망에 대한 장래의 성취 가능성

앞의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입생 자신의 자긍심을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음을 보았다. 이는 앞으로의 목표와 소망에 대한 장래의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래의 목표와 소망은 <表-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43.5% (718명)인 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학생은 32.1%(531명)로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16> 목표와 소망에 대한 장래의 성취 가능성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0 (0.0)	1 (0.9)	3 (1.3)	0 (0.0)	2 (0.9)	3 (1.7)	7 (3.4)	5 (1.5)	21 (1.3)	19 (2.3)	2 (0.2)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	25 (9.0)	13 (11.5)	17 (7.4)	6 (6.2)	27 (12.8)	21 (11.9)	25 (12.0)	35 (10.4)	169 (10.2)	90 (10.7)	79 (9.8)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이루어질 것 같다	121 (43.5)	41 (36.3)	89 (38.7)	46 (47.4)	91 (43.1)	66 (37.3)	100 (48.1)	164 (48.5)	718 (43.5)	342 (40.5)	377 (46.7)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92 (33.1)	42 (37.2)	88 (38.3)	37 (38.1)	61 (28.9)	64 (36.2)	48 (23.1)	99 (29.3)	531 (32.1)	301 (35.7)	229 (28.4)
잘 모르겠다	40 (14.4)	16 (14.2)	33 (14.3)	8 (8.2)	30 (14.2)	23 (13.0)	28 (13.5)	35 (10.4)	213 (12.9)	92 (10.9)	120 (14.9)

2. 家庭環境

1) 보호자와의 관계 및 보호자의 연령 및 학력

신입생들의 보호자는 대부분 아버지 86.6%(1,440)로 나타나 결혼 가정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17 참조>

<表-17> 보호자와의 관계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42 (85.5)	92 (82.1)	201 (86.3)	84 (84.8)	184 (87.6)	161 (89.9)	184 (88.5)	292 (86.4)	1,440 (86.6)	722 (84.8)	719 (88.5)
모	34 (12.0)	13 (11.6)	30 (12.9)	12 (12.1)	19 (9.0)	14 (7.8)	23 (11.1)	39 (11.5)	184 (11.1)	105 (12.3)	79 (9.7)
형, 누나, 오빠, 언니	3 (1.1)	1 (0.9)	1 (0.4)	2 (2.0)	2 (1.0)	2 (1.1)	0 (0.0)	2 (0.6)	13 (0.8)	8 (0.9)	5 (0.6)
조 부	1 (0.4)	0 (0.0)	0 (0.0)	1 (1.0)	1 (0.5)	0 (0.0)	0 (0.0)	0 (0.0)	3 (0.2)	2 (0.2)	1 (0.1)
조 모	1 (0.4)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1 (0.1)	1 (0.1)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친 척		0 (0.0)	0 (0.0)	0 (0.0)	0 (0.0)	0 (0.0)	2 (1.1)	0 (0.0)	1 (0.3)	3 (0.2)	2 (0.2)	1 (0.1)
본 인		2 (0.7)	5 (4.5)	1 (0.4)	0 (0.0)	4 (1.9)	0 (0.0)	1 (0.5)	4 (1.2)	17 (1.0)	11 (1.3)	6 (0.7)
기 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또한 보호자의 연령은 <表-18>에서 보여주듯이 60대와 50대가 90.0%(1509명)이다.

<表-18> 보호자의 연령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20대		5 (1.7)	0 (0.0)	0 (0.0)	0 (0.0)	0 (0.0)	0 (0.0)	1 (0.5)	1 (0.3)	7 (0.4)	2 (0.2)	5 (0.6)
30대		7 (2.4)	5 (4.4)	5 (2.1)	4 (4.0)	6 (2.8)	4 (2.2)	2 (1.0)	4 (1.2)	37 (2.2)	18 (2.1)	19 (2.3)
40대		4 (1.4)	1 (0.9)	1 (0.4)	1 (1.0)	1 (0.5)	0 (0.0)	0 (0.0)	1 (0.3)	9 (0.5)	4 (0.5)	5 (0.6)
50대		113 (39.2)	46 (40.4)	87 (37.2)	47 (47.5)	89 (41.8)	66 (36.5)	87 (41.8)	142 (41.8)	677 (40.4)	314 (36.7)	363 (44.3)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60대	137 (47.6)	51 (44.7)	126 (53.8)	41 (41.4)	103 (48.4)	97 (53.6)	106 (51.0)	171 (50.3)	832 (49.6)	449 (52.5)	382 (46.6)
70대	22 (7.6)	11 (9.6)	15 (6.4)	5 (5.1)	13 (6.1)	12 (6.6)	11 (5.3)	21 (6.2)	110 (6.6)	65 (7.6)	45 (5.5)
80대 이상	0 (0.0)	0 (0.0)	0 (0.0)	1 (1.0)	1 (0.5)	2 (1.1)	1 (0.5)	0 (0.0)	5 (0.3)	4 (0.5)	1 (0.1)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 36.2%(603명), 중졸 24.2%(404명), 대졸 16.3%(272명), 국졸 19.1%(318명)의 순위로 나타나 점차 보호자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19 참조>

<表-19> 보호자의 학력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무 학	6 (2.1)	5 (4.4)	6 (2.6)	2 (2.0)	3 (1.4)	4 (2.2)	4 (1.9)	7 (2.1)	37 (2.2)	26 (3.1)	11 (1.4)
한 문 수 학	2 (0.7)	3 (2.7)	0 (0.0)	0 (0.0)	1 (0.5)	1 (0.6)	0 (0.0)	1 (0.3)	8 (0.5)	5 (0.6)	3 (0.4)
국 졸	52 (18.2)	22 (19.5)	53 (22.9)	19 (19.2)	36 (17.1)	36 (19.9)	30 (14.4)	70 (20.7)	318 (19.1)	189 (22.2)	129 (15.8)
중 졸	64 (22.4)	32 (28.3)	60 (26.0)	23 (23.2)	69 (32.7)	38 (21.0)	49 (23.6)	69 (20.4)	404 (24.2)	210 (24.6)	192 (23.6)
고 졸	102 (35.7)	36 (31.9)	76 (32.9)	39 (39.4)	68 (32.2)	68 (37.6)	88 (42.3)	126 (37.3)	603 (36.2)	278 (32.6)	324 (39.8)
대 졸	56 (19.6)	12 (10.6)	36 (15.6)	13 (13.1)	31 (14.7)	31 (17.1)	34 (16.3)	59 (17.5)	272 (16.3)	133 (15.6)	141 (17.3)
대 학 원 졸	4 (1.4)	3 (2.7)	0 (0.0)	3 (3.0)	3 (1.4)	3 (1.7)	3 (1.4)	6 (1.8)	25 (1.5)	11 (1.3)	14 (1.7)

2)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의 생존 여부는 <表-20>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앞항의 表-17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表-20> 부모의 생존 여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 모두 생존		251 (87.5)	99 (87.6)	202 (86.0)	85 (85.9)	194 (90.2)	161 (89.0)	186 (89.4)	298 (87.4)	1,476 (87.9)	741 (86.4)	736 (89.5)
부 생존, 모 사망		4 (1.4)	0 (0.0)	5 (2.1)	0 (0.0)	2 (0.9)	4 (2.2)	4 (1.9)	8 (2.3)	27 (1.6)	14 (1.6)	13 (1.6)
모 생존, 부 사망		30 (10.5)	13 (11.5)	28 (11.9)	13 (13.1)	19 (8.8)	14 (7.7)	17 (8.2)	34 (10.0)	168 (10.0)	98 (11.4)	70 (8.5)
부·모 사망		2 (0.7)	1 (0.9)	0 (0.0)	1 (1.0)	0 (0.0)	2 (1.1)	1 (0.5)	1 (0.3)	8 (0.5)	5 (0.6)	3 (0.4)

3) 가족수

가족수는 (表-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가족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가족수는 5명이 28.2%(472명), 6명 25.7%(430명), 7명 19.4%(324명), 8명 13.5%(226명) 순이다.

<表-21> 가 족 수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명		0 (0.0)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1 (0.1)	0 (0.0)
2명		2 (0.7)	0 (0.0)	2 (0.9)	1 (1.0)	2 (0.9)	1 (0.6)	1 (0.5)	2 (0.6)	11 (0.7)	5 (0.6)	6 (0.7)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3명	3 (1.0)	3 (2.7)	2 (0.9)	1 (1.0)	5 (2.3)	13 (7.2)	9 (4.3)	7 (2.1)	43 (2.6)	29 (3.4)	14 (1.7)
4명	21 (7.3)	10 (8.8)	20 (8.5)	10 (10.2)	23 (10.7)	22 (12.2)	17 (8.2)	43 (12.6)	166 (9.9)	114 (13.3)	52 (6.4)
5명	88 (30.8)	39 (34.5)	51 (21.8)	23 (23.5)	63 (29.3)	51 (28.3)	55 (26.6)	102 (30.0)	472 (28.2)	278 (32.5)	195 (23.9)
6명	64 (22.4)	26 (23.0)	68 (29.1)	28 (28.6)	58 (27.0)	44 (24.4)	51 (24.6)	91 (26.8)	430 (25.7)	207 (24.2)	223 (27.3)
7명	59 (20.6)	22 (19.5)	49 (20.9)	21 (21.4)	44 (20.5)	28 (15.6)	47 (22.7)	54 (15.9)	324 (19.4)	134 (1.7)	189 (23.1)
8명	49 (17.1)	12 (10.6)	42 (17.9)	14 (14.3)	20 (9.3)	21 (11.7)	27 (13.0)	41 (12.1)	226 (13.5)	88 (10.3)	138 (16.9)
9명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명 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보호자의 직업

신입생들의 보호자의 직업은 (表-22) 에서와 같이 농업이 43.8%(721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상업 16.0%(263명), 공무원 7.7%(126명) 순이며, 무직도 1.9%(31명)로 나타났다.

〈表-22〉 보호자의 직업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농 업		103 (37.5)	54 (48.2)	109 (47.0)	50 (50.5)	120 (56.1)	63 (35.8)	92 (44.7)	130 (39.0)	721 (43.8)	365 (43.3)	355 (44.1)
수 산 업		3 (1.1)	3 (2.7)	0 (0.0)	0 (0.0)	2 (0.9)	1 (0.6)	5 (2.4)	7 (2.1)	21 (1.3)	13 (1.5)	8 (1.0)
공 업		1 (0.4)	0 (0.0)	3 (1.3)	1 (1.0)	2 (0.9)	3 (1.7)	2 (1.0)	3 (0.9)	15 (0.9)	11 (1.3)	4 (0.5)
건 설 업		10 (3.6)	4 (3.6)	5 (2.2)	3 (3.0)	4 (1.9)	11 (6.3)	12 (5.8)	16 (4.8)	65 (3.9)	32 (3.8)	33 (4.1)
써 어 비 스 업		20 (7.3)	10 (8.9)	25 (10.8)	11 (11.1)	11 (5.1)	11 (6.3)	12 (5.8)	15 (4.5)	115 (7.0)	60 (7.1)	55 (6.8)
회 사 원		21 (7.6)	8 (7.1)	9 (3.9)	6 (6.1)	10 (4.7)	23 (13.1)	14 (6.8)	25 (7.5)	116 (7.0)	60 (7.1)	56 (7.0)
공 무 원		18 (6.5)	7 (6.3)	16 (6.9)	7 (7.1)	16 (7.5)	13 (7.4)	20 (9.7)	29 (8.7)	126 (7.7)	61 (7.2)	66 (8.2)
교 육 자		18 (6.5)	5 (4.5)	9 (3.9)	6 (6.1)	4 (1.9)	9 (5.1)	10 (4.9)	17 (5.1)	78 (4.7)	32 (3.8)	46 (5.7)
정 치 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3)	1 (0.1)	0 (0.0)	1 (0.1)
법 률 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언 론 분 야		0 (0.0)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0 (0.0)	1 (0.1)
종 교 인		1 (0.4)	1 (0.9)	0 (0.0)	0 (0.0)	1 (0.5)	1 (0.6)	0 (0.0)	1 (0.3)	5 (0.3)	3 (0.4)	2 (0.2)
관 인		2 (0.7)	0 (0.0)	1 (0.4)	1 (1.0)	1 (0.5)	0 (0.0)	0 (0.0)	0 (0.0)	5 (0.3)	2 (0.2)	3 (0.4)
상 업		58 (21.1)	16 (14.3)	35 (15.1)	7 (7.1)	29 (13.6)	27 (15.3)	26 (12.6)	65 (19.5)	263 (16.0)	132 (15.7)	131 (16.3)

항 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문 학 · 예 술 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연 구 원	1 (0.4)	0 (0.0)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2 (0.1)	2 (0.2)	0 (0.0)
의 사	0 (0.0)	1 (0.9)	1 (0.4)	0 (0.0)	2 (0.9)	0 (0.0)	0 (0.0)	0 (0.0)	4 (0.2)	4 (0.5)	0 (0.0)
무 직	2 (0.7)	1 (0.9)	6 (2.6)	2 (2.0)	3 (1.4)	6 (3.4)	5 (2.4)	6 (1.8)	31 (1.9)	21 (2.5)	10 (1.2)
기 타	17 (6.2)	2 (1.8)	11 (4.7)	5 (5.1)	9 (4.2)	8 (4.5)	8 (3.9)	18 (5.4)	78 (4.7)	44 (5.2)	34 (4.2)

5) 가정의 월수입 및 경제 수준

신입생들의 가정의 월수입은 50~59만원이 17.4%(221명), 60~69만원 14.2%(181명), 40~49만원 13.0%(166명)이며, 100만원이상인 가정도 12.3%(157명)를 보이고 있다.

또한 40만원 이하인 가정도 17.8%(217명)를 나타내고 있다. <表-23 참조>

가정의 경제 수준은 가정의 월수입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신입생들이 느끼는 가정의 경제 수준은 중·하가 57.5%(894명), 중·상 35.0%(544명)로 나타났다. <表-24 참조>

<表-23> 가정의 월수입

항 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20만원 이하	13 (6.1)	3 (3.5)	5 (2.8)	7 (8.4)	4 (2.5)	5 (3.4)	5 (3.2)	8 (3.2)	50 (3.9)	33 (4.5)	17 (3.1)
20~29만원	3 (1.4)	1 (1.2)	10 (5.6)	4 (4.8)	12 (7.5)	5 (3.4)	6 (3.9)	8 (3.2)	49 (3.8)	28 (3.8)	21 (3.9)
30~39만원	20 (9.4)	10 (11.6)	17 (9.6)	9 (10.8)	19 (11.8)	19 (13.0)	17 (11.0)	17 (6.7)	128 (10.1)	76 (10.4)	52 (9.5)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40~49만원	24 (11.3)	15 (17.4)	26 (14.7)	13 (15.7)	15 (9.3)	17 (11.6)	19 (12.3)	37 (14.6)	166 (13.0)	93 (12.8)	72 (13.2)
50~59만원	38 (17.9)	16 (18.6)	26 (14.7)	19 (22.9)	25 (15.5)	29 (19.9)	27 (17.4)	41 (16.2)	221 (17.4)	127 (17.4)	95 (17.4)
60~69만원	31 (14.6)	12 (14.0)	24 (13.6)	8 (9.6)	24 (14.9)	22 (15.1)	21 (13.5)	39 (15.4)	181 (14.2)	106 (14.5)	75 (13.8)
70~79만원	28 (13.2)	6 (7.0)	19 (10.7)	10 (12.0)	24 (14.9)	12 (8.2)	29 (18.7)	25 (9.9)	153 (12.0)	88 (12.1)	65 (11.9)
80~89만원	20 (9.4)	10 (11.6)	17 (9.6)	6 (7.2)	14 (8.7)	11 (7.5)	11 (7.1)	13 (5.1)	102 (8.0)	53 (7.3)	49 (9.0)
90~99만원	9 (4.2)	0 (0.0)	11 (6.2)	5 (6.0)	7 (4.3)	5 (3.4)	7 (4.5)	22 (8.7)	66 (5.2)	35 (4.8)	31 (5.7)
100만원 이상	26 (12.3)	13 (15.1)	22 (12.4)	2 (2.4)	17 (10.6)	21 (14.4)	13 (8.4)	43 (17.0)	157 (12.3)	90 (12.3)	68 (12.5)

〈表-24〉 가정의 경제수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상	1 (0.4)	0 (0.0)	2 (0.9)	0 (0.0)	1 (0.5)	1 (0.6)	1 (0.5)	0 (0.0)	6 (0.4)	5 (0.6)	1 (0.1)
중 상	110 (41.2)	30 (28.8)	74 (34.4)	27 (29.7)	63 (32.6)	66 (37.1)	62 (31.8)	112 (35.8)	544 (35.0)	253 (30.5)	290 (39.9)
중 하	134 (50.2)	64 (61.5)	123 (57.2)	56 (61.5)	115 (59.6)	99 (55.6)	124 (63.6)	179 (57.2)	894 (57.5)	504 (60.7)	391 (53.9)
하 상	14 (5.2)	8 (7.7)	6 (2.8)	8 (8.8)	11 (5.7)	7 (3.9)	7 (3.6)	16 (5.1)	77 (4.9)	48 (5.8)	29 (4.0)
하 하	8 (3.0)	2 (1.9)	9 (4.2)	0 (0.0)	2 (1.0)	5 (2.8)	1 (0.5)	6 (1.9)	33 (2.1)	18 (2.2)	15 (2.1)

6) 가정의 분위기 및 부모의 양육태도

신입생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表-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가 66.6%(1,110명), 그저 그렇다 21.3%(355명), 언제나 화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66.2%(1,070명), 지나치게 보호간섭하고 있다 14.3%(232명), 엄격히 통제하고 지시한다 9.6%(156명)로 나타나 다정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식에 대해 과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입생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부모들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학생도 8.7%(141명)이다. <表-26 참조>

<表-25> 가정의 분위기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언제나 화목하다		38 (13.3)	12 (10.7)	14 (6.0)	12 (12.2)	26 (12.3)	14 (7.8)	11 (5.3)	26 (7.6)	153 (9.2)	86 (10.1)	67 (8.3)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177 (62.1)	67 (59.8)	160 (68.7)	73 (74.5)	138 (65.4)	113 (62.8)	152 (73.4)	230 (67.4)	1,110 (66.6)	533 (62.4)	576 (70.9)
그저 그렇다		59 (20.7)	29 (25.9)	55 (23.6)	10 (10.2)	39 (18.5)	48 (26.7)	39 (18.8)	76 (22.3)	355 (21.3)	208 (24.4)	147 (18.1)
화목하지 못한 편이다		9 (3.2)	3 (2.7)	4 (1.7)	2 (2.0)	7 (3.3)	3 (1.7)	5 (2.4)	8 (2.3)	41 (2.5)	20 (2.3)	21 (2.6)
전혀 화목하지 못하다		2 (0.7)	1 (0.9)	0 (0.0)	1 (1.0)	1 (0.5)	2 (1.1)	0 (0.0)	1 (0.3)	8 (0.5)	7 (0.8)	1 (0.1)

<表-26> 부모의 양육태도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192 (69.6)	70 (63.1)	146 (64.9)	73 (76.0)	134 (65.7)	110 (62.9)	130 (64.4)	215 (65.5)	1,070 (66.2)	530 (63.8)	541 (68.8)
지나치게 보호 간섭하고 있다.		30 (10.9)	16 (14.4)	31 (13.8)	12 (12.5)	39 (19.1)	26 (14.9)	28 (13.9)	50 (15.2)	232 (14.3)	136 (16.4)	96 (12.2)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애정이 없고 무관심하다.		5 (1.8)	1 (0.9)	3 (1.3)	0 (0.0)	1 (0.5)	3 (1.7)	3 (1.5)	2 (0.6)	18 (1.1)	9 (1.1)	9 (1.1)
엄격히 통제하고 지시한다.		27 (9.8)	13 (11.7)	25 (11.1)	7 (7.3)	19 (9.3)	19 (10.9)	18 (8.9)	28 (8.5)	156 (9.6)	84 (10.1)	71 (9.0)
행동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		22 (8.0)	11 (9.9)	20 (8.9)	4 (4.2)	11 (5.4)	17 (9.7)	23 (11.4)	33 (10.1)	141 (8.7)	72 (8.7)	69 (8.8)

7)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

신입생들은 가정에서의 큰 문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기타와 문제점이 없다가 46.3%(751명)를 보여 줌).

설문조사결과 3위인 경제문제가 21.1%(342명)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대간의 견해차이가 23.3%(377명)이다. <表-27>에서 보여주듯이 가족중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5.2%(85명), 가정불화 4.1%(66명)로 나타났다.

<表-27>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 문제		64 (23.0)	21 (19.4)	51 (22.7)	26 (26.8)	35 (17.5)	41 (22.9)	45 (22.3)	59 (17.8)	342 (21.1)	174 (20.8)	168 (21.5)
부모와의 견해 차이		45 (16.2)	33 (30.6)	51 (22.7)	20 (20.6)	60 (30.0)	47 (26.3)	41 (20.3)	80 (24.1)	377 (23.3)	218 (26.0)	158 (20.2)
가정 불화		6 (2.2)	4 (3.7)	6 (2.7)	4 (4.1)	13 (6.5)	9 (5.0)	13 (6.4)	11 (3.3)	66 (4.1)	40 (4.8)	26 (3.3)
가정내의 질병		19 (6.8)	2 (1.9)	11 (4.9)	2 (2.1)	15 (7.5)	6 (3.4)	12 (5.9)	18 (5.4)	85 (5.2)	45 (5.4)	40 (5.1)
기 타		69 (24.8)	25 (23.1)	60 (26.7)	24 (24.7)	37 (18.5)	37 (20.7)	51 (25.2)	81 (24.4)	384 (23.7)	178 (21.2)	206 (26.3)
문제점이 없다		75 (27.0)	23 (21.3)	46 (20.4)	21 (21.6)	40 (20.0)	39 (21.8)	40 (19.8)	83 (25.0)	367 (22.6)	183 (21.8)	185 (23.6)

8) 부모와 자신의 사물을 보는 견해의 차이정도

〈表-28〉에서 보여주듯이 신입생과 부모간에 사물을 보는 견해차이가 다소 있는 것 67.4%(1,121명)으로 나타났고, 차이가 심하다도 12.7%(211명)를 보여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表-28〉 부모와 자신의 사물을 보는 견해의 차이정도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차이가 심하다	30 (10.6)	18 (16.1)	34 (14.6)	15 (15.2)	22 (10.5)	30 (16.9)	23 (11.1)	39 (11.5)	211 (12.7)	135 (15.9)	76 (9.3)	
차이가 다소 있다	191 (67.3)	77 (68.8)	156 (67.0)	72 (72.7)	132 (62.9)	110 (61.8)	148 (71.2)	235 (69.3)	1,121 (67.4)	541 (63.9)	580 (71.1)	
그저 그렇다	43 (15.1)	12 (10.7)	34 (14.6)	10 (10.1)	39 (18.6)	27 (15.2)	30 (14.4)	43 (12.7)	238 (14.3)	110 (13.0)	128 (15.7)	
차이가 없다	12 (4.2)	2 (1.8)	4 (1.7)	2 (2.0)	6 (2.9)	4 (2.2)	5 (2.4)	10 (2.9)	45 (2.7)	24 (2.8)	21 (2.6)	
모르겠다	8 (2.8)	3 (2.7)	5 (2.1)	0 (0.0)	11 (5.2)	7 (3.9)	2 (1.0)	12 (3.5)	48 (2.9)	37 (4.4)	11 (1.3)	

9) 가족중 개인적인 문제의 주된 의논 대상

신입생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기보다 순위 형제와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2%(567명), 다음이 어머니 26.9%(447명) 순인 반면 아버지와 의논은 11.2%(186명)며, 가족과 의논하지 않는다가 14.9%(247명)를 보여 순위 자매와 어머니가 주로 의논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表-29 참조〉

〈表-29〉 가족중 개인적인 문제의 주된 의논상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22 (7.8)	15 (13.4)	25 (10.7)	15 (15.2)	31 (14.8)	18 (10.1)	19 (9.2)	41 (12.1)	186 (11.2)	119 (14.0)	69 (8.5)	
모	92 (32.7)	27 (24.1)	59 (25.3)	37 (37.4)	45 (21.4)	43 (24.0)	68 (33.0)	76 (22.4)	447 (26.9)	173 (20.3)	274 (33.9)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형, 누나, 오빠, 언니		96 (34.2)	33 (29.5)	91 (39.1)	28 (28.3)	70 (33.3)	51 (28.5)	67 (32.5)	131 (38.6)	567 (34.2)	264 (31.0)	302 (37.4)
동 생		10 (3.6)	3 (2.7)	6 (2.6)	6 (6.1)	8 (3.8)	2 (1.1)	10 (4.9)	12 (3.5)	57 (3.4)	15 (1.8)	42 (5.2)
의논 없음		27 (9.6)	21 (18.8)	38 (16.3)	10 (10.1)	31 (14.8)	41 (22.9)	28 (13.6)	51 (15.0)	247 (14.9)	175 (20.6)	72 (8.9)
기 타		34 (12.1)	13 (11.6)	14 (6.0)	3 (3.0)	25 (11.9)	24 (13.4)	14 (6.8)	28 (8.3)	155 (9.3)	105 (12.3)	49 (6.1)

3. 大學 및 學科選擇의 準據

1) 대학진학의 근본적인 목적

신입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表-30>에서 보여주듯이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22.4%(369명),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21.5%(355명), 인격수양을 위해서 21.0%(347명), 학문 탐구를 위해 17.9%(296명)로 나타났다.

<表-30> 대학진학의 근본적인 목적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보다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35 (12.4)	22 (19.6)	59 (26.0)	20 (20.8)	40 (18.8)	57 (31.8)	40 (19.3)	96 (28.7)	369 (22.4)	218 (25.7)	151 (18.8)

대 학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인적 수양을 위해 서	72 (25.5)	24 (21.4)	47 (20.7)	28 (29.2)	33 (15.5)	29 (16.2)	48 (23.2)	66 (19.7)	347 (21.0)	151 (17.8)	195 (24.3)
교양을 쌓기 위해 서	4 (1.4)	6 (5.4)	4 (1.8)	3 (3.1)	16 (7.5)	10 (5.6)	4 (1.9)	10 (3.0)	57 (3.5)	40 (4.7)	17 (2.1)
배우자 선택에 유리하므로	1 (0.4)	1 (0.9)	2 (0.9)	1 (1.0)	0 (0.0)	1 (0.6)	0 (0.0)	2 (0.6)	8 (0.5)	7 (0.8)	1 (0.1)
주위를 의식해서	5 (1.8)	2 (1.8)	5 (2.2)	3 (3.1)	7 (3.3)	15 (8.4)	15 (7.2)	6 (1.8)	58 (3.5)	37 (4.4)	21 (2.6)
폭넓은 인간 관계 를 위해서	51 (18.1)	19 (17.0)	55 (24.2)	12 (12.5)	61 (28.6)	34 (19.0)	57 (27.5)	66 (19.7)	355 (21.5)	178 (21.0)	178 (22.2)
학문 탐구를 위해 서	82 (29.1)	29 (25.9)	30 (13.2)	25 (26.0)	26 (12.2)	18 (10.1)	28 (13.5)	58 (17.3)	296 (17.9)	130 (15.3)	165 (20.6)
기 타	32 (11.3)	9 (8.0)	25 (11.0)	4 (4.2)	30 (14.1)	15 (8.4)	15 (7.2)	31 (9.3)	161 (9.8)	87 (10.3)	74 (9.2)

2) 제주대학에 지원동기 및 입학한 금지심

신입생들이 제주대학에 입학한 동기는 입학가능성을 고려하여 34.6%(576명), 기타 23.6%(390명), 지방의 유일한 국립대학이므로 12.4%(204명), 경제적 이유 12.7%(209명) 순이다. <表-31 참조>

<表-31> 제주대학에 지원동기

대 학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우리 지방의 유일 한 4년제 국립대 학이기 때문에	46 (16.3)	9 (7.9)	22 (9.6)	9 (9.3)	28 (13.4)	16 (8.9)	34 (16.5)	40 (11.9)	204 (12.4)	81 (9.6)	123 (15.3)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타 대학에 없는 특수 분야의 학문 연구를 위하여	2 (0.7)	1 (0.9)	6 (2.6)	2 (2.1)	12 (5.7)	29 (16.2)	1 (0.5)	18 (5.4)	71 (4.3)	61 (7.2)	10 (1.2)
입학 가능성을 고려하여	90 (31.8)	28 (24.6)	75 (32.9)	17 (17.5)	85 (40.7)	78 (43.6)	88 (42.7)	111 (33.1)	572 (34.6)	308 (36.3)	264 (32.9)
제주 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27 (9.5)	26 (22.8)	38 (16.7)	17 (17.5)	19 (9.1)	10 (5.6)	24 (11.7)	44 (13.1)	205 (12.4)	124 (14.6)	81 (10.1)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49 (17.3)	20 (17.5)	27 (11.8)	34 (35.1)	7 (3.3)	11 (6.1)	26 (12.6)	35 (10.4)	209 (12.7)	71 (8.4)	139 (17.3)
기 타	69 (24.4)	30 (26.3)	60 (26.3)	18 (18.6)	58 (27.8)	35 (19.6)	33 (16.0)	87 (26.0)	390 (23.6)	203 (23.9)	183 (23.2)

또한 제주대학교에 입학한 긍지심은 그저그렇다 70.9%(1,167명), 자랑스럽다 27.9%(459명)며, 부끄럽다도 1.2%(19명)이다. <表-32 참조>

<表-32> 제주대학교 입학한 긍지심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랑스럽다	98 (34.8)	28 (25.2)	53 (23.7)	34 (34.7)	69 (32.9)	48 (27.4)	45 (21.7)	84 (24.9)	459 (27.9)	223 (26.5)	235 (29.2)
그저 그렇다	183 (64.9)	83 (74.8)	167 (74.6)	62 (63.3)	137 (65.2)	126 (72.0)	158 (76.3)	251 (74.3)	1,167 (70.9)	604 (71.9)	563 (70.0)
부끄럽다	1 (0.4)	0 (0.0)	4 (1.8)	2 (2.0)	4 (1.9)	1 (0.6)	4 (1.9)	3 (0.9)	19 (1.2)	13 (1.5)	6 (0.7)

3)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요인과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신입생들이 학과선택시 고려한 요인은 <表-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성에 의한 선택이 28.2%(464명), 직업적 전망 25.3%(416명), 입학가능성 23.8%(391명), 이상실현 9.2%(152명)로 나타났다.

적성과 이상실현을 위한 학생이 37.4%(616명)를 보여 전체 신입생의 3분의1 수준이긴 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면을 보였다.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었다 51.8%(865명), 잘못랐다 35.7%(596명)으로 학과선택에 대강 알고 있었다와 잘 알고 있었다를 합치면 56.9%의 학생이 사전 예비지식에 의한 학과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表-34 참조>

<表-33> 학과선택과정에서 고려한 요인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41 (14.5)	36 (32.4)	94 (42.0)	20 (20.4)	34 (16.3)	59 (33.0)	29 (14.1)	103 (30.7)	416 (25.3)	220 (26.1)	196 (24.5)
적 성	135 (47.9)	25 (22.5)	40 (17.9)	36 (36.7)	30 (14.4)	28 (15.6)	78 (37.9)	92 (27.4)	464 (28.2)	219 (26.0)	246 (30.7)
입학 가능성	41 (14.5)	10 (9.0)	40 (17.9)	16 (16.3)	92 (44.2)	56 (31.3)	67 (32.5)	69 (20.5)	391 (23.8)	210 (24.9)	181 (22.6)
이상 실현	30 (10.6)	20 (18.0)	21 (9.4)	21 (21.4)	9 (4.3)	12 (6.7)	12 (5.8)	27 (8.0)	152 (9.2)	78 (9.3)	74 (9.2)
기 타	35 (12.4)	20 (18.0)	29 (12.9)	5 (5.1)	43 (20.7)	24 (13.4)	20 (9.7)	45 (13.4)	221 (13.4)	115 (13.7)	104 (13.0)

<表-34> 지원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항 목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알고 있었다	30 (10.5)	10 (8.9)	2 (0.9)	6 (6.1)	3 (1.4)	11 (6.1)	7 (3.4)	16 (4.7)	85 (5.1)	53 (6.2)	32 (3.9)
대강 알고 있었다	149 (52.3)	59 (52.7)	114 (48.7)	69 (69.7)	94 (43.9)	88 (48.9)	115 (55.3)	177 (52.2)	865 (51.8)	472 (55.3)	392 (48.0)
잘 몰랐었다	92 (32.3)	41 (36.6)	98 (41.9)	24 (24.2)	87 (40.7)	58 (32.2)	78 (37.5)	118 (34.8)	596 (35.7)	252 (29.5)	344 (42.1)
전혀 몰랐었다	14 (4.9)	2 (1.8)	20 (8.5)	0 (0.0)	30 (14.0)	23 (12.8)	8 (3.8)	28 (8.3)	125 (7.5)	76 (8.9)	49 (6.0)

4) 학과를 선택한 시기와 학과에 대한 만족도

〈表-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고교3학년 2학기가 41.8%(688명), 입학원서 접수직전 38.2%(629명)로 나타난 반면 고교 1~3학년 1학기 15.6%(257명), 중학교 또는 그 이전 4.3%(71명)로 나타났다.

선택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하다 41.3%(688명), 보통이다 40.7%(679명) 순으로 대체로 학과선택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36 참조〉

그러나 현재 잘 모르겠다가 15.7%(261명), 불만이다 2.3%(39명)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表-35〉 학과 선택 시기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입학원서 접수 직전		64 (22.7)	42 (38.5)	96 (42.5)	31 (32.0)	107 (51.4)	81 (45.0)	84 (40.4)	124 (37.0)	629 (38.2)	328 (39.3)	299 (36.9)
고교3학년 2학기		94 (33.3)	46 (42.2)	94 (41.6)	41 (42.3)	86 (41.0)	84 (46.7)	97 (46.6)	146 (43.6)	688 (41.8)	367 (44.0)	320 (39.5)
고교 1~3학년 1학기		86 (30.5)	17 (15.6)	31 (13.7)	18 (18.6)	12 (5.8)	13 (7.2)	22 (10.6)	58 (17.3)	257 (15.6)	110 (13.2)	149 (18.4)
중학교 또는 그 이전		38 (13.5)	4 (3.7)	5 (2.2)	7 (7.2)	3 (1.4)	2 (1.1)	5 (2.4)	7 (2.1)	71 (4.3)	29 (3.5)	42 (5.2)

〈表-36〉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만족한다		154 (54.0)	48 (42.9)	98 (41.9)	42 (42.4)	58 (27.2)	70 (39.1)	63 (30.3)	155 (46.0)	688 (41.3)	350 (41.1)	338 (41.5)
보통이다		96 (33.7)	38 (33.9)	90 (38.5)	47 (47.5)	109 (51.2)	65 (36.3)	105 (50.5)	129 (38.3)	679 (40.7)	351 (41.2)	328 (40.2)
불만이다		7 (2.5)	1 (0.9)	7 (3.0)	1 (1.0)	7 (3.3)	4 (2.2)	6 (2.9)	6 (1.8)	39 (2.3)	20 (2.4)	19 (2.3)
현재 잘 모르겠다		28 (9.8)	25 (22.3)	39 (16.7)	9 (9.1)	39 (18.3)	40 (22.3)	34 (16.3)	47 (13.9)	261 (15.7)	130 (15.3)	130 (16.0)

4. 大學生活

1) 大學생활에의 적응 여부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적응 여부는 (表-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대로 적응할 것이다가 77.3%(1,280명)를 보이는 반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12.0%(199명), 매우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0.7%(12명)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앞의 학과선택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잘 모르겠다 15.7%(261명), 불만이다 2.3%(39명)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表-37) 大學생활에의 적응 여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적응할 것이다	31 (11.0)	7 (6.3)	19 (8.3)	9 (9.3)	24 (11.4)	20 (11.1)	18 (8.7)	37 (11.0)	165 (10.0)	105 (12.4)	61 (7.5)
그런대로 적응할 것이다	207 (73.1)	88 (79.3)	186 (80.9)	79 (81.4)	161 (76.3)	139 (77.2)	160 (76.9)	260 (77.4)	1,280 (77.3)	641 (75.9)	637 (78.5)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43 (15.2)	16 (14.4)	23 (10.0)	9 (9.3)	23 (10.9)	20 (11.1)	28 (13.5)	37 (11.0)	199 (12.0)	90 (10.7)	109 (13.4)
매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2 (0.7)	0 (0.0)	2 (0.9)	0 (0.0)	3 (1.4)	1 (0.6)	2 (1.0)	2 (0.6)	12 (0.7)	8 (0.9)	4 (0.5)

2) 대학 전 기간을 통해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신입생들은 대학 전 기간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성격 및 대학·사회 적응 문제 27.4%(453명), 장래 진학 문제 22.6%(373명), 학업성취 문제 20.0%(331명)을 꼽고 있다.

또한 학비문제 10.7%(176명), 병역문제도 7.3%(120명)을 보이고 있다. (表-38 참조)

(表-38) 大學 전 기간을 통해서 예상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 문제	28 (10.0)	13 (11.5)	24 (10.6)	11 (11.3)	28 (13.2)	17 (9.4)	25 (12.1)	30 (8.9)	176 (10.7)	73 (8.6)	103 (12.8)
건강 문제	16 (5.7)	4 (3.5)	6 (2.7)	3 (3.1)	8 (3.8)	1 (0.6)	10 (4.8)	7 (2.1)	55 (3.3)	34 (4.0)	21 (2.6)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병역 문제	8 (2.9)	5 (4.4)	17 (7.5)	6 (6.2)	19 (9.0)	18 (10.0)	14 (6.8)	33 (9.8)	120 (7.3)	119 (14.0)	1 (0.1)
학업 성취 문제	66 (23.6)	24 (21.2)	48 (21.2)	13 (13.4)	37 (17.5)	40 (22.2)	37 (17.9)	66 (19.6)	331 (20.0)	162 (19.1)	169 (21.0)
성격 및 대학 사회 적응 문제	82 (29.3)	37 (32.7)	73 (32.3)	29 (29.9)	54 (25.5)	32 (17.8)	61 (29.5)	85 (25.3)	453 (27.4)	184 (21.7)	269 (33.5)
장래 진학 문제	55 (19.6)	19 (16.8)	37 (16.4)	27 (27.8)	47 (22.2)	51 (28.3)	54 (26.1)	83 (24.7)	373 (22.6)	195 (23.0)	178 (22.1)
기 다	25 (8.9)	11 (9.7)	21 (9.3)	8 (8.2)	19 (9.0)	21 (11.7)	6 (2.9)	32 (9.5)	143 (8.7)	80 (9.4)	63 (7.8)

3)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과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은 사항은 (表-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이 52.5%(695명), 교내씨클 19.7%(260명) 순이다.

(表-39)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	107 (49.5)	47 (54.0)	110 (57.3)	23 (39.0)	68 (39.3)	68 (46.3)	114 (66.7)	158 (56.8)	695 (52.5)	335 (47.5)	360 (58.3)
장학금 제도	21 (9.7)	12 (13.8)	14 (7.3)	3 (5.1)	15 (8.7)	7 (4.8)	15 (8.8)	16 (5.8)	103 (7.8)	40 (5.7)	63 (10.2)
해외유학	14 (6.5)	5 (5.7)	9 (4.7)	4 (6.8)	16 (9.2)	10 (6.8)	0 (0.0)	11 (4.0)	69 (5.2)	44 (6.2)	25 (4.1)
교내 학생 씨클	42 (19.4)	14 (16.1)	35 (18.2)	21 (35.6)	38 (22.0)	36 (24.5)	26 (15.2)	48 (17.3)	260 (19.7)	151 (21.4)	109 (17.7)
대학시설 및 교수 진용	5 (2.3)	2 (2.3)	2 (1.0)	0 (0.0)	9 (5.2)	3 (2.0)	3 (1.8)	4 (1.4)	28 (2.1)	20 (2.8)	8 (1.3)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 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공학과 의 교육 내용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르바이트	6 (2.8)	0 (0.0)	6 (3.1)	5 (8.5)	6 (3.5)	10 (6.8)	7 (4.1)	15 (5.4)	55 (4.2)	33 (4.7)	22 (3.6)
군 입 대	4 (1.9)	1 (1.1)	6 (3.1)	0 (0.0)	6 (3.5)	4 (2.7)	1 (0.6)	11 (4.0)	33 (2.5)	33 (4.7)	0 (0.0)
기 타	17 (7.9)	6 (6.9)	10 (5.2)	3 (5.1)	15 (8.7)	9 (6.1)	5 (2.9)	15 (5.4)	80 (6.0)	50 (7.1)	30 (4.9)

또한 대학에서 신입생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은 (表-40)에서 보여 주듯 폭넓은 사회 경험 33.7%(556명), 써클활동 19.6%(323명), 교양서적 읽기 8.1%(134명), 어학훈련 7.3%, 이성교재 6.3%, 학업보충 6.0%, 전공서적 읽기 5.6% 순이다.

(表-40)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서적 읽기	35 (12.5)	7 (6.3)	7 (3.1)	3 (3.1)	3 (1.4)	10 (5.6)	13 (6.4)	14 (4.2)	92 (5.6)	43 (5.1)	49 (6.1)
교양서적 읽기	16 (5.7)	17 (15.3)	19 (8.3)	15 (15.3)	19 (9.0)	7 (3.9)	18 (8.8)	23 (6.8)	134 (8.1)	67 (7.9)	67 (8.3)
이성 교제	15 (5.3)	6 (5.4)	15 (6.6)	1 (1.0)	17 (8.1)	13 (7.2)	11 (5.4)	25 (7.4)	103 (6.3)	96 (11.4)	7 (0.9)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폭넓은 사회 경험	84 (29.9)	32 (28.8)	87 (38.2)	38 (38.8)	64 (30.5)	61 (33.9)	71 (34.8)	119 (35.4)	556 (33.7)	251 (29.8)	305 (38.0)
씨클 활동	50 (17.8)	18 (16.2)	41 (18.0)	18 (18.4)	52 (24.8)	41 (22.8)	37 (18.1)	66 (19.6)	323 (19.6)	165 (19.6)	158 (19.7)
교수와의 접촉	11 (3.9)	2 (1.8)	3 (1.3)	1 (1.0)	9 (4.3)	8 (4.4)	10 (4.9)	20 (6.0)	64 (3.9)	29 (3.4)	34 (4.2)
어학 훈련	22 (7.8)	7 (6.3)	26 (11.4)	10 (10.2)	16 (7.6)	8 (4.4)	11 (5.4)	21 (6.3)	121 (7.3)	51 (6.0)	69 (8.6)
학업 보충	24 (8.5)	10 (9.0)	13 (5.7)	4 (4.1)	7 (3.3)	10 (5.6)	16 (7.8)	15 (4.5)	99 (6.0)	42 (5.0)	57 (7.1)
아르바이트	8 (2.8)	4 (3.6)	10 (4.4)	6 (6.1)	8 (3.8)	13 (7.2)	11 (5.4)	16 (4.8)	76 (4.6)	48 (5.7)	28 (3.5)
기 타	16 (5.7)	8 (7.2)	7 (3.1)	2 (2.0)	15 (7.1)	9 (5.0)	6 (2.9)	17 (5.1)	80 (4.9)	51 (6.0)	29 (3.6)

4) 어학 훈련에 대한 계획과 방법

신입생들이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은 (表-41)에서와 같이 제1,2외국어 수시로 하겠다가 63.4%(1,044명), 주로 제1외국어만 주력하겠다 31.3%(516명)의 응답을 보인 반면 외국어의 특별한 훈련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학생도 5.2%(86명)이다.

어학훈련의 방법으로서 (表-42)에서와 같이 강의의 충실한 수강을 통해가 43.8%(708명)로 가장 많고, 사설학원, 토풀서적 및 회화카세트 이용이 각각 18.6%(301명)를 보이고 있다.

(表-41) 어학훈련에 대한 계획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주로 제1외국어에만 주력하겠다.	48 (17.1)	23 (20.5)	66 (28.9)	31 (31.6)	61 (29.6)	79 (44.1)	68 (32.7)	140 (41.7)	516 (31.3)	317 (37.5)	199 (24.9)	
제1, 2외국어를 수시로 하겠다.	218 (77.9)	84 (75.0)	157 (68.9)	63 (64.3)	125 (60.7)	90 (50.3)	127 (61.1)	180 (53.6)	1,044 (63.4)	479 (56.6)	564 (70.5)	
외국어의 특별한 훈련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14 (5.0)	5 (4.5)	5 (2.2)	4 (4.1)	20 (9.7)	10 (5.6)	12 (5.8)	16 (4.8)	86 (5.2)	49 (5.8)	37 (4.6)	

(表-42) 어학 훈련 방법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사설 학원을 통해서	48 (17.6)	17 (15.3)	51 (22.8)	17 (17.2)	46 (22.7)	27 (15.7)	36 (17.8)	59 (17.8)	301 (18.6)	148 (17.9)	152 (19.3)	
클럽을 통해서	7 (2.6)	2 (1.8)	7 (3.1)	5 (5.1)	4 (2.0)	5 (2.9)	11 (5.4)	17 (5.1)	58 (3.6)	34 (4.1)	24 (3.1)	
평소 강의의 충실한 수강을 통해서	140 (51.3)	53 (47.7)	90 (40.2)	40 (40.4)	77 (37.9)	82 (47.7)	89 (44.1)	137 (41.4)	708 (43.8)	332 (40.0)	377 (48.0)	
토폴서적 및 회화 카세트를 이용해서	34 (12.5)	22 (19.8)	39 (17.4)	18 (18.2)	43 (21.2)	37 (21.5)	39 (19.3)	69 (20.8)	301 (18.6)	185 (22.3)	115 (14.6)	
외국인과의 계속적 접촉을 통해	13 (4.8)	2 (1.8)	5 (2.2)	8 (8.1)	3 (1.5)	5 (2.9)	4 (2.0)	5 (1.5)	45 (2.8)	24 (2.9)	21 (2.7)	
어학 실습실을 활용해서	16 (5.9)	5 (4.5)	10 (4.5)	6 (6.1)	13 (6.4)	7 (4.1)	7 (3.5)	21 (6.3)	85 (5.3)	45 (5.4)	41 (5.2)	
학교 특강을 통해서	15 (5.5)	10 (9.0)	22 (9.8)	5 (5.1)	17 (8.4)	9 (5.2)	16 (7.9)	23 (6.9)	117 (7.2)	61 (7.4)	56 (7.1)	

5. 교수와의 關係

1) 교수와의 人間관계 및 기대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은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가 51.6%(854명), 교수와

학문적·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가 29.0%(481명),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다 14.6%(241명) 순으로 응답했다. (表-43 참조)

또한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으로는 (表-44)에서 보여주듯이 인간적지도 71.4%(1,183명), 충실한 강의 22.6%(374명)로 교수들의 인간적 지도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43) 교수와의 관계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교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문적 지도를 받고 싶다.	40 (14.1)	21 (18.6)	40 (17.3)	17 (17.7)	21 (10.0)	27 (15.1)	31 (15.0)	44 (13.0)	241 (14.6)	134 (15.8)	106 (13.1)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계를 맺고 싶다.	135 (47.7)	47 (41.6)	119 (51.5)	48 (50.0)	128 (61.2)	92 (51.4)	112 (54.4)	173 (51.0)	854 (51.6)	450 (53.1)	405 (50.1)
교수와는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	3 (1.1)	3 (2.7)	3 (1.3)	1 (1.0)	2 (1.0)	2 (1.1)	4 (1.9)	7 (2.1)	25 (1.5)	15 (1.8)	10 (1.2)
교수와 학문적·인간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92 (32.5)	40 (35.4)	58 (25.1)	28 (29.2)	49 (23.4)	53 (29.6)	55 (26.7)	106 (31.3)	481 (29.0)	214 (25.2)	267 (33.0)
기 타	13 (4.6)	2 (1.8)	11 (4.8)	2 (2.1)	9 (4.3)	5 (2.8)	4 (1.9)	9 (2.7)	55 (3.3)	35 (4.1)	20 (2.5)

(表-44) 교수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충실한 강의	74 (26.1)	34 (30.4)	41 (17.7)	19 (19.6)	27 (12.9)	37 (20.7)	47 (22.7)	95 (28.3)	374 (22.6)	197 (23.2)	177 (22.0)
인간적 지도	192 (67.6)	74 (66.1)	175 (75.8)	73 (75.3)	163 (77.6)	131 (73.2)	153 (73.9)	222 (66.1)	1,183 (71.4)	593 (69.8)	590 (73.2)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4 (1.4)	3 (2.7)	6 (2.6)	2 (2.1)	7 (3.3)	2 (1.1)	3 (1.4)	11 (3.3)	38 (2.3)	25 (2.9)	13 (1.6)
기 타	14 (4.9)	1 (0.9)	9 (3.9)	3 (3.1)	13 (6.2)	9 (5.0)	4 (1.9)	8 (2.4)	61 (3.7)	35 (4.1)	26 (3.2)

6. 對人 關係

1) 친한 친구 수 및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

신입생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친구의 수는 (表-45)에서 보듯이 약간 50.7%(432명), 많음 38.5%(328명), 적음 10.8%(92명) 순을 보이고 있다.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表-46 참조)으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74.0%(1,229명),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 15.5%(258명), 학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6.1%(101명) 순이다.

(表-45) 친한 친구의 수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많 음		90 (31.8)	20 (26.8)	82 (35.3)	35 (35.7)	90 (42.5)	69 (38.3)	74 (35.6)	125 (36.9)	595 (35.8)	328 (38.5)	265 (32.7)
약 간		165 (58.3)	65 (58.0)	129 (55.6)	57 (58.2)	106 (50.0)	93 (51.7)	108 (51.9)	173 (51.0)	896 (53.8)	432 (50.7)	465 (57.3)
적 음		28 (9.9)	17 (15.2)	21 (9.1)	6 (6.1)	16 (7.5)	18 (10.0)	26 (12.5)	41 (12.1)	173 (10.4)	92 (10.8)	81 (10.0)

(表-46)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		27 (9.6)	13 (11.5)	8 (3.4)	11 (11.1)	7 (3.3)	4 (2.3)	17 (8.3)	14 (4.1)	101 (6.1)	45 (5.3)	56 (6.9)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		42 (14.9)	16 (14.2)	30 (12.9)	11 (11.1)	43 (20.2)	34 (19.2)	24 (11.7)	58 (17.2)	258 (15.5)	152 (17.9)	106 (13.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195 (69.1)	79 (69.9)	184 (79.0)	74 (74.7)	157 (73.7)	129 (72.9)	160 (77.7)	251 (74.3)	1,229 (74.0)	607 (71.6)	622 (76.5)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		2 (0.7)	1 (0.9)	3 (1.3)	1 (1.0)	0 (0.0)	1 (0.6)	0 (0.0)	4 (1.2)	12 (0.7)	8 (0.9)	4 (0.5)
기 타		16 (5.7)	4 (3.5)	8 (3.4)	2 (2.0)	6 (2.8)	9 (5.1)	5 (2.4)	11 (3.3)	61 (3.7)	36 (4.2)	25 (3.1)

2)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신입생들의 대인관계(表-47 참조)는 별 어려움이 없다가 66.3%(1,103명), 아주 원만하다 17.5%(291명), 약간 힘들다 15.6%(259명)이다.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로는(表-48 참조) 사교성이 부족 33.1%(528명)로 첫째로 들고 있고 다음이 어려움이 없다 26.5%(423명), 자신이 지나친 소극성 18.5%(295명), 기타 13.5%(216명) 등을 생각하고 있다.

(表-47) 대인 관계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아주 원만하다		44 (15.5)	14 (12.6)	36 (15.5)	9 (9.1)	49 (23.3)	40 (22.2)	40 (19.2)	59 (17.4)	291 (17.5)	178 (20.9)	113 (13.9)
별 어려움이 없다		190 (67.1)	74 (66.7)	159 (68.2)	78 (78.8)	130 (61.9)	122 (67.8)	127 (61.1)	223 (65.6)	1,103 (66.3)	547 (64.3)	556 (68.4)
약간 힘들다		47 (16.6)	21 (18.9)	36 (15.5)	11 (11.1)	30 (14.3)	17 (9.4)	41 (19.7)	56 (16.5)	259 (15.6)	119 (14.0)	140 (17.2)
아주 힘들다		2 (0.7)	2 (1.8)	2 (0.9)	1 (1.0)	1 (0.5)	1 (0.6)	0 (0.0)	2 (0.6)	11 (0.7)	7 (0.8)	4 (0.5)

(表-48)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자신의 지나친 소극성		39 (14.3)	25 (22.9)	39 (17.8)	18 (18.6)	29 (14.7)	28 (16.5)	51 (25.1)	66 (20.2)	295 (18.5)	166 (20.3)	129 (16.6)
사교성의 부족		88 (32.2)	34 (31.2)	76 (34.7)	43 (44.3)	71 (36.0)	47 (27.6)	64 (31.5)	105 (32.1)	528 (33.1)	244 (29.8)	283 (36.4)
가정 환경 곤란		2 (0.7)	1 (0.9)	4 (1.8)	2 (2.1)	0 (0.0)	2 (1.2)	1 (0.5)	3 (0.9)	15 (0.9)	8 (1.0)	7 (0.9)
신체적 열등감		1 (0.4)	2 (1.8)	1 (0.5)	0 (0.0)	3 (1.5)	3 (1.8)	2 (1.0)	4 (1.2)	16 (1.0)	13 (1.6)	3 (0.4)
자신의 우월의식		5 (1.8)	3 (2.8)	1 (0.5)	1 (1.0)	3 (1.5)	5 (2.9)	1 (0.5)	1 (0.3)	21 (1.3)	10 (1.2)	11 (1.4)
자신의 열등의식		6 (2.2)	6 (5.5)	12 (5.5)	4 (4.1)	15 (7.6)	7 (4.1)	13 (6.4)	18 (5.5)	81 (5.1)	44 (5.4)	37 (4.8)
어려움이 없다		82 (30.0)	18 (16.5)	65 (29.7)	17 (17.5)	58 (29.4)	56 (32.9)	49 (24.1)	78 (23.9)	423 (26.5)	244 (29.8)	180 (23.2)
기 타		50 (18.3)	20 (18.3)	21 (9.6)	12 (12.4)	18 (9.1)	22 (12.9)	21 (10.3)	52 (15.9)	216 (13.5)	89 (10.9)	127 (16.3)

3)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와 대학생활 기간의 이성과의 교제 여부

신입생들의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로는 없다 61.3%(1,014명), 있었다 27.2%(450명)이며, 계속 교제중 7.1%(118명)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때 이미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49 참조)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성과의 교제 여부는 (表-50)에서 보여 주듯이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54.3%(896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스럽게 폭넓은 교제를 원하는 학생도 41.4%(682명)다.

반면 학업의 충실을 위하여 사귄 필요가 없다는 학생도 2.7%(44명)나 되며, 교수와 부모 또는 선배의 조언을 받고 조심스럽게 교제하겠다는 학생도 1.6%(27명)나 되고 있다.

(表-49) 이성교제 경험의 유무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없 다	186 (66.0)	72 (64.3)	143 (63.0)	68 (70.1)	105 (49.8)	88 (49.4)	139 (66.8)	213 (63.0)	1,014 (61.3)	429 (50.5)	584 (72.6)
있었다	69 (24.5)	31 (27.7)	61 (26.9)	23 (23.7)	68 (32.2)	64 (36.0)	46 (22.1)	88 (26.0)	450 (27.2)	298 (35.1)	153 (19.0)
교제 중이다	16 (5.7)	3 (2.7)	12 (5.3)	4 (4.1)	24 (11.4)	15 (8.4)	16 (7.7)	28 (8.3)	118 (7.1)	78 (9.2)	40 (5.0)
기 타	11 (3.9)	6 (5.4)	11 (4.8)	2 (2.1)	14 (6.6)	11 (6.2)	7 (3.4)	9 (2.7)	71 (4.3)	44 (5.2)	27 (3.4)

(表-50) 대학생활 기간의 이성과의 교제 여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업의 충실을 위하여 사귄 필요가 없다	11 (3.9)	2 (1.8)	2 (0.9)	1 (1.0)	4 (1.9)	6 (3.4)	8 (3.9)	10 (3.0)	44 (2.7)	22 (2.6)	22 (2.7)
서로 도움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한다	143 (51.1)	61 (55.0)	129 (56.6)	54 (54.5)	128 (61.5)	86 (48.3)	114 (55.1)	181 (53.6)	896 (54.3)	497 (59.0)	399 (49.5)
자연스럽고 폭넓은 교제를 원한다	124 (44.3)	48 (43.2)	93 (40.8)	41 (41.4)	74 (35.6)	81 (45.5)	80 (38.6)	141 (41.7)	682 (41.4)	313 (37.1)	369 (45.8)
교수님과 부모 또는 선배의 조언을 받고 조심스럽게 교제하겠다	2 (0.7)	0 (0.0)	4 (1.8)	3 (3.0)	2 (1.0)	5 (2.8)	5 (2.4)	6 (1.8)	27 (1.6)	11 (1.3)	16 (2.0)

7. 課外活動 및 副職活動

1) 씨클 활동 여부

신입생들이 씨클 활동은 취미 분야 37.1%(611명), 스포츠 활동분야 10.4%(171명), 학술분야 9.0%(149명), 봉사활동분야 8.2%(135명) 등인 반면, 생각한바 없다 10.0%(164명), 안하겠다 4.9%(81명)를 보이고 있다. (表-51 참조)

(表-51) 씨클 활동 분야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하겠다	16 (5.7)	9 (8.2)	13 (5.7)	3 (3.1)	7 (3.3)	6 (3.3)	8 (3.9)	19 (5.7)	81 (4.9)	45 (5.4)	36 (4.5)
학술 분야	35 (12.5)	12 (10.9)	18 (7.9)	16 (16.3)	16 (7.7)	11 (6.1)	13 (6.3)	28 (8.4)	149 (9.0)	73 (8.7)	76 (9.4)
봉사활동 분야	18 (6.4)	8 (7.3)	24 (10.5)	10 (10.2)	20 (9.6)	17 (9.4)	22 (10.6)	16 (4.8)	135 (8.2)	52 (6.2)	83 (10.3)
취미 분야	86 (30.6)	35 (31.8)	83 (36.2)	31 (31.6)	76 (36.4)	66 (36.7)	90 (43.5)	144 (43.2)	611 (37.1)	320 (38.1)	291 (36.1)
종교 분야	20 (7.1)	6 (5.5)	8 (3.5)	3 (3.1)	10 (4.8)	5 (2.8)	10 (4.8)	11 (3.3)	73 (4.4)	36 (4.3)	37 (4.6)
스포츠활동 분야	21 (7.5)	12 (10.9)	21 (9.2)	6 (6.1)	20 (9.6)	28 (15.6)	23 (11.1)	40 (12.0)	171 (10.4)	114 (13.6)	57 (7.1)
교양 분야	13 (4.6)	5 (4.5)	10 (4.4)	8 (8.2)	14 (6.7)	6 (3.3)	8 (3.9)	13 (3.9)	77 (4.7)	34 (4.0)	42 (5.2)
언론 분야	26 (9.3)	7 (6.4)	16 (7.0)	10 (10.2)	7 (3.3)	6 (3.3)	6 (2.9)	11 (3.3)	89 (5.4)	28 (3.3)	61 (7.6)
기 타	19 (6.8)	5 (4.5)	14 (6.1)	4 (4.1)	16 (7.7)	13 (7.2)	9 (4.3)	17 (5.1)	97 (5.9)	51 (6.1)	45 (5.6)
생각한 바 없다	27 (9.6)	11 (10.0)	22 (9.6)	7 (7.1)	23 (11.0)	22 (12.2)	18 (8.7)	34 (10.2)	164 (10.0)	87 (10.4)	77 (9.6)

2) 독서의 종류

신입생들이 독서의 종류는 문학 및 취미 도서 52.9%(876명), 교양도서 22.8%(377명), 전공과 관련된 도서 17.0%(281명) 등이다. (表-52 참조)

(表-52) 독서의 종류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과 관련된 도서	74 (26.1)	22 (19.8)	26 (11.3)	11 (11.2)	24 (11.4)	21 (11.7)	38 (18.4)	65 (19.2)	281 (17.0)	143 (16.9)	138 (17.0)
교양 도서	42 (14.8)	28 (25.2)	55 (23.9)	26 (26.5)	52 (24.6)	38 (21.2)	48 (23.3)	88 (26.0)	377 (22.8)	211 (24.9)	164 (20.2)
문학 및 취미 도서	150 (53.0)	55 (49.5)	129 (56.1)	55 (56.1)	110 (52.1)	102 (57.0)	111 (53.9)	164 (48.4)	876 (52.9)	411 (48.6)	465 (57.4)
기 타	17 (6.0)	6 (5.4)	20 (8.7)	6 (6.1)	25 (11.8)	18 (10.1)	9 (4.4)	22 (6.5)	123 (7.4)	81 (9.6)	43 (5.3)

3) 학비 조달 방법

신입생들이 학비조달 방법은 (表-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에 의존 90.1%(1,510명), 장학금 3.8%(64명)인 반면 본인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학생도 2.3%(38명)나 되고 있다.

(表-53) 학비 조달 방법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모	255 (89.8)	93 (82.3)	205 (87.2)	81 (82.7)	202 (94.0)	162 (89.5)	193 (92.8)	319 (93.5)	1,510 (90.1)	777 (90.6)	732 (89.7)
형 제	5 (1.8)	4 (3.5)	8 (3.4)	1 (1.0)	2 (0.9)	5 (2.8)	4 (1.9)	4 (1.2)	33 (2.0)	14 (1.6)	19 (2.3)
본 인	10 (3.5)	7 (6.2)	7 (3.0)	1 (1.0)	1 (0.5)	2 (1.1)	3 (1.4)	7 (2.1)	38 (2.3)	18 (2.1)	20 (2.5)
응 자 및 차 용	2 (0.7)	0 (0.0)	2 (0.9)	0 (0.0)	2 (0.9)	2 (1.1)	1 (0.5)	1 (0.3)	10 (0.6)	6 (0.7)	4 (0.5)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장 학 금	8 (2.8)	6 (5.3)	9 (3.8)	15 (15.3)	5 (2.3)	8 (4.4)	6 (2.9)	7 (2.1)	64 (3.8)	33 (3.8)	31 (3.8)
기 타	4 (1.4)	3 (2.7)	4 (1.7)	0 (0.0)	3 (1.4)	2 (1.1)	1 (0.5)	3 (0.9)	20 (1.2)	10 (1.2)	10 (1.2)

4) 대학생활중 아르바이트 희망여부와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중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는 것 87%(원한다 74.0%, 절실히 원한다 13.0%)으로 나타난 반면 아르바이트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학생도 13.1%를 보여주고 있다. (表-54 참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 주된 이유로서는 학비조달 방법(11.7%) 보다는 폭넓은 사회생활 때문에 44.4%(698명)이며 용돈 마련을 위한 학생도 38.8%(610명)나 되고 있다. (表-55 참조)

(表-54) 대학생활중 아르바이트 희망 여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절실히 원한다	39 (13.8)	17 (15.6)	19 (8.2)	20 (20.4)	24 (11.4)	28 (15.6)	22 (10.7)	45 (13.4)	214 (13.0)	105 (12.4)	109 (13.5)
원한다	207 (73.4)	74 (67.9)	177 (76.6)	73 (74.5)	151 (71.6)	129 (72.1)	165 (80.1)	246 (73.2)	1,222 (74.0)	614 (72.7)	608 (75.3)
별로 관심없다	18 (6.4)	11 (10.1)	16 (6.9)	1 (1.0)	13 (6.2)	9 (5.0)	13 (6.3)	29 (8.6)	110 (6.7)	65 (7.7)	45 (5.6)
생각한적 없다	11 (3.9)	3 (2.8)	11 (4.8)	1 (1.0)	12 (5.7)	4 (2.2)	2 (1.0)	9 (2.7)	53 (3.2)	32 (3.8)	21 (2.6)
모르겠다	7 (2.5)	4 (3.7)	8 (3.5)	3 (3.1)	11 (5.2)	9 (5.0)	4 (1.9)	7 (2.1)	53 (3.2)	29 (3.4)	24 (3.0)

(表-55)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폭넓은 사회생활	107 (39.8)	46 (46.5)	96 (43.2)	40 (42.6)	94 (46.8)	84 (48.8)	97 (49.0)	134 (42.4)	698 (44.4)	358 (45.0)	338 (43.7)
용돈 마련	97 (36.1)	30 (30.3)	97 (43.7)	41 (43.6)	80 (39.8)	62 (36.0)	73 (36.9)	130 (41.1)	610 (38.8)	304 (38.2)	307 (39.7)
학비 마련	47 (17.5)	20 (20.2)	15 (6.8)	13 (13.8)	18 (9.0)	17 (9.9)	18 (9.1)	36 (11.4)	184 (11.7)	90 (11.3)	94 (12.1)
가족의 생계유지	1 (0.4)	0 (0.0)	0 (0.0)	0 (0.0)	2 (1.0)	2 (1.2)	0 (0.0)	0 (0.0)	5 (0.3)	5 (0.6)	0 (0.0)
기 타	17 (6.3)	3 (3.0)	14 (6.3)	0 (0.0)	7 (3.5)	7 (4.1)	10 (5.1)	16 (5.1)	74 (4.7)	39 (4.9)	35 (4.5)

8. 社會問題에 대한 關心

1)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신입생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表-56)에서 보듯이 사치 및 부정부패 28.8%(477명), 빈부의 차 19.6%(325명), 상호불신 17.6%, 정치인에 대한 불신 16.3%, 사회질서 8.9%, 경제문제 3.6%, 청소년 비행 2.5% 등으로 집계됐다.

(表-56)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 문제	14 (5.0)	4 (3.5)	8 (3.5)	4 (4.1)	5 (2.4)	2 (1.1)	6 (2.9)	16 (4.7)	59 (3.6)	28 (3.3)	31 (3.8)
빈부의 차	62 (22.0)	22 (19.5)	51 (22.3)	25 (25.5)	35 (16.7)	33 (18.4)	37 (17.9)	60 (17.8)	325 (19.6)	164 (19.3)	161 (20.0)

항 목 \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정치인에 대한 불신	45 (16.0)	20 (17.7)	37 (16.2)	8 (8.2)	40 (19.0)	42 (23.5)	24 (11.6)	53 (15.7)	269 (16.3)	155 (18.3)	113 (14.0)
사치 및 부정부패	78 (27.7)	23 (20.4)	68 (29.7)	28 (28.6)	62 (29.5)	52 (29.1)	71 (34.3)	95 (28.2)	477 (28.8)	237 (27.9)	241 (29.9)
사회 질서	36 (12.8)	8 (7.1)	17 (7.4)	8 (8.2)	16 (7.6)	15 (8.4)	20 (9.7)	28 (8.3)	148 (8.9)	57 (6.7)	91 (11.3)
청소년 비행 문제	4 (1.4)	1 (0.9)	2 (0.9)	0 (0.0)	8 (3.8)	7 (3.9)	5 (2.4)	14 (4.2)	41 (2.5)	27 (3.2)	14 (1.7)
상호 불신	33 (11.7)	30 (26.5)	43 (18.8)	22 (22.4)	37 (17.6)	24 (13.4)	42 (20.3)	61 (18.1)	292 (17.6)	151 (17.8)	141 (17.5)
기 타	10 (3.5)	5 (4.4)	3 (1.3)	3 (3.1)	6 (2.9)	3 (1.7)	2 (1.0)	8 (2.4)	40 (2.4)	26 (3.1)	14 (1.7)
별 문제가 없다	0 (0.0)	0 (0.0)	0 (0.0)	0 (0.0)	1 (0.5)	1 (0.6)	0 (0.0)	2 (0.6)	4 (0.2)	4 (0.5)	0 (0.0)

2)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신입생들이 보는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表-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 문제 45.3%(741명), 문화의 낙후성 24.5%, 환경보존문제 9.7%, 농업문제 7.6%, 상공업의 약화 4.0%, 교육문제 2.8%, 청소년 비행 2.5% 순인데 이는 濟州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파생되는 사회문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表-57)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가장 큰 문제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청소년 비행		5 (1.8)	7 (6.3)	4 (1.7)	1 (1.1)	11 (5.2)	5 (2.8)	3 (1.5)	5 (1.5)	41 (2.5)	28 (3.3)	13 (1.6)
지역개발 문제		119 (42.7)	46 (41.4)	120 (52.4)	52 (55.9)	102 (48.6)	72 (40.7)	80 (38.8)	150 (45.6)	741 (45.3)	399 (47.5)	342 (43.1)
문화의 낙후성		91 (32.6)	23 (20.7)	49 (21.4)	16 (17.2)	34 (16.2)	41 (23.2)	67 (32.5)	79 (24.0)	400 (24.5)	143 (17.0)	256 (32.2)
상공업의 약화		7 (2.5)	7 (6.3)	14 (6.1)	1 (1.1)	10 (4.8)	9 (5.1)	5 (2.4)	13 (4.0)	66 (4.0)	50 (6.0)	16 (2.0)
교통 문제		1 (0.4)	0 (0.0)	0 (0.0)	0 (0.0)	1 (0.5)	2 (1.1)	4 (1.9)	2 (0.6)	10 (0.6)	7 (0.8)	3 (0.4)
환경보존 문제		23 (8.2)	12 (10.8)	14 (6.1)	12 (12.9)	14 (6.7)	19 (10.7)	26 (12.6)	39 (11.9)	159 (9.7)	84 (10.0)	76 (9.6)
교육 문제		4 (1.4)	5 (4.5)	3 (1.3)	5 (5.4)	2 (1.0)	5 (2.8)	7 (3.4)	14 (4.3)	45 (2.8)	25 (3.0)	20 (2.5)
농업 문제		22 (7.9)	9 (8.1)	20 (8.7)	6 (6.5)	19 (9.0)	14 (7.9)	12 (5.8)	22 (6.7)	124 (7.6)	64 (7.6)	60 (7.6)
제주 사람이 아니 라서 모르겠다		7 (2.5)	2 (1.8)	5 (2.2)	0 (0.0)	17 (8.1)	10 (5.6)	2 (1.0)	5 (1.5)	48 (2.9)	40 (4.8)	8 (1.0)

3)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

신입생들이 보는 청소년 비행문제는 (表-58)에서 보여주듯이 심각하다가 85.9%(심각하다 60.8%, 매우 심각 25.1%)로 나타났다. 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신입생은 14.2%에 그치고 있다.

(表-58)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심각하다	61 (21.5)	31 (27.4)	61 (26.5)	27 (27.6)	47 (22.2)	53 (29.4)	67 (32.2)	71 (20.8)	418 (25.1)	192 (22.5)	224 (27.6)
심각하다	185 (65.1)	70 (61.9)	142 (61.7)	61 (62.2)	128 (60.4)	100 (55.6)	117 (56.3)	210 (61.6)	1,013 (60.8)	525 (61.4)	490 (60.6)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1.8)	2 (1.8)	10 (4.3)	6 (6.1)	9 (4.2)	7 (3.9)	11 (5.3)	16 (4.7)	66 (4.0)	44 (5.1)	22 (2.7)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1.4)	1 (0.9)	3 (1.3)	0 (0.0)	8 (3.8)	3 (1.7)	1 (0.5)	8 (2.3)	28 (1.7)	20 (2.3)	8 (1.0)
잘 모르겠다	29 (10.2)	9 (0.8)	14 (6.1)	4 (4.1)	20 (9.4)	17 (9.4)	12 (5.8)	36 (10.6)	141 (8.5)	74 (8.7)	67 (8.3)

4)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세대 차이 정도

이항은 앞의 表-28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모와의 견해 차이가 있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表-59)에서 보여 주듯이 심하다 64.9%로 나타나 가정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세대 차이를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表-59)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세대차이 정도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혀 없다	2 (0.7)	0 (0.0)	0 (0.0)	0 (0.0)	0 (0.0)	1 (0.6)	2 (1.0)	1 (0.3)	6 (0.4)	3 (0.4)	3 (0.4)
별로 없다	55 (19.5)	17 (15.2)	38 (16.5)	11 (11.2)	44 (21.1)	36 (20.2)	35 (17.0)	64 (19.0)	300 (18.1)	163 (19.3)	138 (17.1)
심하다	171 (60.6)	79 (70.5)	153 (66.2)	75 (76.5)	131 (62.7)	110 (61.8)	138 (67.0)	215 (63.8)	1,072 (64.9)	522 (61.7)	549 (68.0)
매우 심하다	29 (10.3)	11 (9.8)	16 (6.9)	4 (4.1)	19 (9.1)	15 (8.4)	15 (7.3)	28 (8.3)	137 (8.3)	87 (10.3)	50 (6.2)
모르겠다	25 (8.9)	5 (4.5)	24 (10.4)	8 (8.2)	15 (7.2)	16 (9.0)	16 (7.8)	29 (8.6)	138 (8.3)	71 (8.4)	67 (8.3)

5)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신입생들이 보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노력 37.4%(620명), 실력 22.45, 인간관계 19.2%, 인격 12.1% 순으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表-60 참조)

반면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재력(2.2%), 가문·배경(1.4%) 등은 겨우 3.6%에 머물고 있다.

(表-60)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	번	4 (1.4)	1 (0.9)	9 (3.9)	2 (2.0)	6 (2.8)	10 (5.6)	5 (2.4)	7 (2.1)	44 (2.7)	30 (3.5)	14 (1.7)
가	문 · 배 경	3 (1.1)	0 (0.0)	6 (2.6)	1 (1.0)	4 (1.9)	4 (2.2)	2 (1.0)	4 (1.2)	24 (1.4)	13 (1.5)	11 (1.4)
재	력	1 (0.4)	3 (2.7)	4 (1.7)	0 (0.0)	3 (1.4)	3 (1.7)	9 (4.3)	13 (3.8)	36 (2.2)	26 (3.1)	10 (1.2)
인	격	39 (14.0)	13 (11.6)	27 (11.6)	15 (15.2)	21 (10.0)	21 (11.7)	30 (14.5)	34 (10.0)	200 (12.1)	109 (12.9)	92 (11.3)
인	간 관 계	64 (22.9)	13 (11.6)	42 (18.1)	10 (10.1)	51 (24.2)	31 (17.2)	35 (16.9)	73 (21.5)	319 (19.2)	175 (20.6)	144 (17.8)
운		3 (1.1)	2 (1.8)	4 (1.7)	0 (0.0)	4 (1.9)	0 (0.0)	1 (0.5)	6 (1.8)	20 (1.2)	12 (1.4)	8 (1.0)
노	력	95 (34.1)	56 (50.0)	88 (37.9)	42 (42.4)	81 (38.4)	57 (31.7)	74 (35.7)	127 (37.5)	620 (37.4)	294 (34.7)	325 (40.1)
실	력	62 (22.2)	21 (18.8)	51 (22.0)	28 (28.3)	36 (17.1)	51 (28.3)	49 (23.7)	74 (21.8)	372 (22.4)	174 (20.5)	198 (24.4)
기	타	8 (2.9)	3 (2.7)	1 (0.4)	1 (1.0)	5 (2.3)	3 (1.7)	2 (1.0)	1 (0.3)	24 (1.4)	15 (1.8)	9 (1.1)

9. 進路關係

1) 대학 졸업후의 계획 및 직업선택의 기준

대학 졸업후의 계획은 (表-61)에서 보여 주듯이 취직 54.9%(904명), 대학원 진학 28.2%, 해외유학 5.3% 순위를 보이고 있다. 직업선택 기준은 (表-62)에서와 같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키울 수 있는 직업선택 45.8%(758명), 직업의 안정성 13.8%, 직업의 전문성 11.5%, 장래 전망 11.4%, 경제적인 소득 8.6% 순을 보였다.

(表-61) 대학졸업후의 계획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취 직	123 (44.2)	56 (50.9)	150 (65.5)	56 (57.7)	109 (51.9)	105 (58.3)	108 (52.7)	197 (58.3)	904 (54.9)	433 (51.4)	472 (58.8)		
대 학 원 진 학	92 (33.1)	32 (29.1)	39 (17.0)	34 (35.1)	48 (22.9)	39 (21.7)	82 (40.0)	99 (29.3)	465 (28.2)	244 (28.9)	220 (27.4)		
해 외 유 학	23 (8.3)	2 (1.8)	15 (6.6)	4 (4.1)	17 (8.1)	12 (6.7)	1 (0.5)	14 (4.1)	88 (5.3)	49 (5.8)	39 (4.9)		
결 혼	4 (1.4)	4 (3.6)	7 (3.1)	0 (0.0)	6 (2.9)	5 (2.8)	2 (1.0)	6 (1.8)	34 (2.1)	32 (3.8)	1 (0.1)		
기 타	36 (12.9)	15 (13.6)	18 (7.9)	3 (3.1)	30 (14.3)	17 (9.4)	12 (5.9)	22 (6.5)	153 (9.3)	84 (10.0)	69 (8.6)		

(表-62) 직업선택의 기준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 소득	15 (5.3)	9 (8.1)	21 (9.1)	3 (3.1)	23 (11.0)	25 (13.9)	10 (4.8)	36 (10.7)	142 (8.6)	99 (11.7)	43 (5.3)		
사회적 지위	5 (1.8)	7 (6.3)	2 (0.9)	1 (1.0)	2 (1.0)	5 (2.8)	5 (2.4)	6 (1.8)	33 (2.0)	22 (2.6)	11 (1.4)		
사회에의 봉사	10 (3.6)	9 (8.1)	11 (4.8)	7 (7.1)	17 (8.1)	8 (4.4)	7 (3.4)	7 (2.1)	76 (4.6)	48 (5.7)	27 (3.3)		
장래 전망	17 (6.0)	11 (9.9)	28 (12.2)	4 (4.1)	30 (14.4)	24 (13.3)	16 (7.7)	59 (17.5)	189 (11.4)	133 (15.7)	56 (6.9)		
직업의 전문성	28 (10.0)	8 (7.2)	19 (8.3)	7 (7.1)	20 (9.6)	22 (12.2)	30 (14.5)	56 (16.6)	190 (11.5)	89 (10.5)	100 (12.4)		
직업의 안정성	28 (10.0)	18 (16.2)	29 (12.6)	5 (5.1)	41 (19.6)	24 (13.3)	39 (18.8)	44 (13.0)	228 (13.8)	117 (13.8)	111 (13.7)		
자신의 적성과 소질	171 (60.9)	47 (42.3)	118 (51.3)	68 (69.4)	65 (31.1)	68 (37.8)	97 (46.9)	124 (36.7)	758 (45.8)	307 (36.3)	452 (55.9)		
기 타	7 (2.5)	2 (1.8)	2 (0.9)	3 (3.1)	11 (5.3)	4 (2.2)	3 (1.4)	6 (1.8)	38 (2.3)	30 (3.6)	8 (1.0)		

2) 대학 졸업후의 계획 및 직업선택의 기준

신입생들이 대학 졸업후의 직업으로서는 (表-63)에서 보듯이 교육자 16.7%(270명), 공무원 14.0%, 회사원 11.7%, 연구원 10.4%를 보여 전체의 41.1%가 공직을 희망하고 있다.

(表-63) 대학 졸업후 장래 희망 직업(인)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농	업	1 (0.4)	0 (0.0)	0 (0.0)	0 (0.0)	13 (6.3)	0 (0.0)	1 (0.5)	1 (0.3)	16 (1.0)	15 (1.8)	1 (0.1)
수	산	0 (0.0)	0 (0.0)	0 (0.0)	0 (0.0)	1 (0.5)	7 (4.0)	1 (0.5)	8 (2.4)	17 (1.1)	14 (1.7)	3 (0.4)
공	업	0 (0.0)	0 (0.0)	1 (0.4)	0 (0.0)	2 (1.0)	3 (1.7)	1 (0.5)	14 (4.3)	21 (1.3)	20 (2.4)	1 (0.1)
건	설	1 (0.4)	0 (0.0)	0 (0.0)	0 (0.0)	4 (1.9)	16 (9.2)	2 (1.0)	9 (2.8)	32 (2.0)	27 (3.3)	5 (0.6)
씨	어	17 (6.3)	0 (0.0)	35 (15.7)	0 (0.0)	17 (8.2)	4 (2.3)	19 (9.2)	18 (5.5)	110 (6.8)	46 (5.5)	64 (8.1)
회	사	16 (5.9)	3 (2.7)	59 (26.5)	1 (1.0)	29 (14.0)	15 (8.6)	21 (10.1)	45 (13.8)	189 (11.7)	104 (12.5)	86 (10.9)
공	무	15 (5.5)	63 (56.8)	37 (16.6)	6 (6.1)	29 (14.0)	26 (14.9)	21 (10.1)	30 (9.2)	227 (14.0)	107 (12.9)	119 (15.1)
교	육	65 (23.9)	5 (4.5)	13 (5.8)	84 (85.7)	16 (7.7)	10 (5.7)	61 (29.5)	16 (4.9)	270 (16.7)	90 (10.8)	180 (22.8)

항 목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정 치 가	1 (0.4)	3 (2.7)	1 (0.4)	0 (0.0)	0 (0.0)	0 (0.0)	2 (1.0)	1 (0.3)	8 (0.5)	7 (0.8)	1 (0.1)
법 률 가	1 (0.4)	13 (11.7)	1 (0.4)	0 (0.0)	0 (0.0)	0 (0.0)	0 (0.0)	0 (0.0)	15 (0.9)	13 (1.6)	2 (0.3)
언 론 인	52 (19.1)	6 (5.4)	10 (4.5)	2 (2.0)	3 (1.4)	3 (1.7)	4 (1.9)	5 (1.5)	85 (5.3)	18 (2.2)	67 (8.5)
종 교 인	1 (0.4)	1 (0.9)	0 (0.0)	0 (0.0)	2 (1.0)	1 (0.6)	1 (0.5)	1 (0.3)	7 (0.4)	3 (0.4)	4 (0.5)
군 인	0 (0.0)	1 (0.9)	2 (0.9)	0 (0.0)	0 (0.0)	1 (0.6)	1 (0.5)	1 (0.3)	6 (0.4)	4 (0.5)	2 (0.3)
사 업 가	7 (2.6)	4 (3.6)	34 (15.2)	0 (0.0)	22 (10.6)	24 (13.8)	9 (4.3)	53 (16.2)	153 (9.5)	128 (15.4)	25 (3.2)
상 업	2 (0.7)	1 (0.9)	5 (2.2)	0 (0.0)	2 (1.0)	2 (1.1)	3 (1.4)	7 (2.1)	22 (1.4)	11 (1.3)	11 (1.4)
문 학 · 예 술 인	55 (20.2)	0 (0.0)	3 (1.3)	0 (1.0)	2 (1.0)	0 (0.0)	3 (1.4)	11 (3.4)	75 (4.6)	18 (2.2)	58 (7.4)
연 구 원	4 (1.5)	1 (0.9)	2 (0.9)	1 (2.0)	28 (13.5)	35 (20.1)	34 (16.4)	62 (19.0)	168 (10.4)	105 (12.7)	63 (8.0)
기 타	34 (12.5)	10 (9.0)	20 (9.0)	2 (2.0)	37 (17.9)	27 (15.5)	23 (11.1)	45 (13.8)	198 (12.2)	100 (12.0)	97 (12.3)

3)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졸업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이 54.2% (890명)로 가장 많고, 다음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15.0%,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10.2% 등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일에 충실하고 싶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表-64 참조)

(表-64)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45 (16.0)	26 (23.6)	40 (17.6)	22 (22.4)	29 (14.0)	24 (13.5)	24 (11.7)	37 (11.0)	247 (15.0)	119 (14.1)	127 (15.8)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137 (48.8)	55 (50.0)	120 (52.9)	40 (40.8)	113 (54.6)	94 (52.8)	113 (55.1)	218 (64.7)	890 (54.2)	472 (56.1)	420 (52.4)
사회지도적 위치에서의 생활	19 (6.8)	10 (9.1)	13 (5.7)	15 (15.3)	13 (6.3)	4 (2.2)	24 (11.7)	10 (3.0)	108 (6.6)	49 (5.8)	59 (7.4)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50 (17.8)	10 (9.1)	13 (5.7)	16 (16.3)	14 (6.8)	19 (10.7)	22 (10.7)	24 (7.1)	168 (10.2)	71 (8.4)	97 (12.1)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	10 (3.6)	5 (4.5)	19 (8.4)	0 (0.0)	19 (9.2)	28 (15.7)	11 (5.4)	26 (7.7)	118 (7.2)	82 (9.8)	35 (4.4)
기 타	20 (7.1)	4 (3.6)	22 (9.7)	5 (5.1)	19 (9.2)	9 (5.1)	11 (5.4)	22 (6.5)	112 (6.8)	48 (5.7)	64 (8.0)

10. 學生生活研究所에 대한 期待

1) 학생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여부와 원하는 상담

신입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상담을 받고 싶은 것(61.2%, 989명)으로 나타났다. (表-65)

상담을 받고 싶은 학생중 원하는 상담은 성격 및 대인관계 문제 29.7%(408명), 진로문제 27.2%, 적성문제 23.5%로 나타나 생활연구소는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表-66 참조)

(表-65) 생활연구소에서의 상담 여부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받고 싶다	156 (57.1)	55 (50.0)	139 (62.6)	60 (63.2)	143 (70.1)	99 (56.3)	134 (65.0)	203 (61.3)	989 (61.2)	522 (62.6)	465 (59.5)
받고 싶지 않다	117 (42.9)	55 (50.0)	83 (37.4)	35 (36.8)	61 (29.9)	77 (43.8)	72 (35.0)	128 (38.7)	628 (38.8)	312 (37.4)	317 (40.5)

(表-66) 원하는 상담

대 학	인문 대학	법정 대학	경상 대학	사범 대학	농과 대학	해양과 학대학	자연과 학대학	공과 대학	전체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건강 문제	3 (1.3)	0 (0.0)	1 (0.6)	0 (0.0)	1 (0.5)	1 (0.7)	2 (1.1)	5 (1.7)	13 (0.9)	11 (1.5)	2 (0.3)
성격 및 대인관계 문제	61 (26.2)	21 (24.4)	55 (31.1)	27 (35.1)	50 (26.9)	35 (24.5)	68 (38.4)	91 (31.1)	408 (29.7)	198 (27.3)	210 (32.5)
적성 문제	60 (25.8)	15 (17.4)	37 (20.9)	18 (23.4)	43 (23.1)	38 (26.6)	43 (24.3)	69 (23.5)	323 (23.5)	165 (22.8)	158 (24.5)
이성 문제	4 (1.7)	2 (2.3)	1 (0.6)	0 (0.0)	10 (5.4)	4 (2.8)	4 (2.3)	4 (1.4)	29 (2.1)	27 (3.7)	2 (0.3)
진로 문제	49 (21.0)	28 (32.6)	51 (28.8)	23 (29.9)	52 (28.0)	44 (30.8)	39 (22.0)	87 (29.7)	373 (27.2)	201 (27.7)	172 (26.6)
가정 문제	2 (0.9)	1 (1.2)	2 (1.1)	0 (0.0)	2 (1.1)	1 (0.7)	0 (0.0)	1 (0.3)	9 (0.7)	8 (1.1)	1 (0.2)
경제 문제	5 (2.1)	3 (3.5)	6 (3.4)	1 (1.3)	4 (2.2)	3 (2.1)	3 (1.7)	4 (1.4)	29 (2.1)	17 (2.3)	12 (1.9)
기 타	49 (21.0)	16 (18.6)	24 (13.6)	8 (10.4)	24 (12.9)	17 (11.9)	18 (10.2)	32 (10.9)	188 (13.7)	98 (13.5)	89 (13.8)

IV. 要約 및 結論

1) 人的背景

신입생들의 성별 구성비율은 여학생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91학년도 성별 구성비만해도 남학생이 51.1%, 여학생 48.9%로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또한 신입생의 연령층은 18~19세가 84.2%를 차지하고 있고, 출생순위는 첫째와 둘째가 48.7%를 차지하고 있다.

성장지와 대학 재학중 거주 예정지는 濟州市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고등학교 계열은 인문계가 96.4%를 차지하고 있다.

신입생중 78.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진학한 반면, 1년재수생은 16.2%, 2년재수 4.1%, 3년 이상 재수는 1.2%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으로 대학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종교는 불교 16.1%, 기독교 15.4%, 천주교 8.3%를 보인 반면, 종교가 없는 학생은 57.9%로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신입생의 음주여부는 마신다는 학생이 51.6%이며, 이를 1백%로 봤을 경우 여학생의 음주도 26.2%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은 그리 많지 않은 신입생의 22.0%이다.

신입생들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은(보통이다 61.0%, 자랑스럽다 26.4%, 대단히 자랑스럽다 8.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와 소망에 대한 장래의 성취 가능성은 (이루어질 것 같다 43.5%,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32.1%)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 家庭環境

신입생들의 가정환경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자와의 관계는 아버지 86.6%, 어머니 11.1%며, 보호자의 연령은 60대와 50대(90.0%)가 가장 많고, 보호자의 학력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신입생들의 가족수는 5~7명 (63.3%)를 보였다.

가족의 주거 형태는 자가(85.0%)가 많았으며, 보호자의 직업은 농업(43.8%), 상업(16.0%), 공무원(7.7%), 회사원(7.0%), 서비스업(7.0%) 등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가정의 경제수준은 우리 사회의 평균치에 달하고 있었다(중·하 57.2%, 중·상 35.8%).

신입생들의 가정 분위기는 비교적 화목한 편(66.6%)이며,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도 좋은 편(다정한 관계를 갖고 있다 66.2%)으로 집계된 반면 가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모와의 견해차를 들고 있어 세대간의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중 개인적인 문제의 주된 의논 대상으로는 아버지(11.2%) 보다 형, 누나, 오빠, 언니 등이 34.2%를 보였고,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높은 26.9%를 차지했다.

3) 大學 및 學科選擇의 基準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이유는 보다 나은 직업(22.4%)과 폭넓은 인간관계(21.5%), 인격수양(21.0%)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학문연구(17.9%)도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濟州大學校를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는 입학 가능성(34.6%)과, 경제적 사정(12.7%), 濟州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12.4%) 등으로 조사했다. 濟州大學校에 입학한 궁지에 대해서는 그저그렇다(70.9%), 매우 자랑스럽다(27.9%)를 보였으며 학과 선택과정에서 고려한 점은 적성(28.2%) 직업적 전망(25.3%) 입학가능성(23.8%) 등인 반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9.2%나 되고 있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고교 3학년 2학기 때(41.8%), 입학원서 접수직전(38.2%)으로 나타났고,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은 알고 있었다(대강 알고 있었다 51.8%, 잘 알고 있었다 5.1%)와 몰랐다(잘 몰랐다 35.7%, 전혀 몰랐다 7.5%)가 반반임을 보여 줬다. 그러나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는 잘 적응(만족하다 41.3%, 보통이다 40.7%)할 것으로 조사됐다.

4) 大學生活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도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그런데로 적응할 것이다 77.3%, 잘 적응 10.0%).

반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학생도 11.6%나 되어, 입학후 적절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관해 알고 싶은 사항은 전공학과의 특성 및 전망(52.5%) 교내 씨클(19.7%) 등으로 밝혀졌다.

대학에서 제일 먼저 경험해 보고 싶은 것으로는 폭넓은 사회 경험(33.7%)을 들고 있다.

신입생들이 바라는 教授象으로는 학문적, 인간적 象을 바라고 있다.

5) 對人關係

신입생들의 對人관계나 사귀고 싶은 친구의 유형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바라고 있으며, 대인관계는 그런데로 무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학생이 27.2%인 반면, 없다는 학생은 61.3%를 보였고,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이성교제를 원하는 학생은 95.7%로 나타났다.

6) 課外活動 및 副職活動

신입생들이 써클 활동을 할 경우 활동분야는 취미분야(37.1%), 스포츠 분야(10.4%), 학술분야(9.0%) 등이다.

읽고 싶은 책은 문학 및 취미도서(52.9%), 스포츠 분야(10.4%)와 교양도서(22.8%)이다.

신입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으며(원한다 74.0%, 절실히 원한다 13.0%), 그 이유는 폭넓은 사회생활(44.4%)과 용돈마련(38.8%)이 대다수인 반면 학비마련을 위한 학생도 11.7%나 되고 있다.

7) 社會問題에 대한 關心

신입생들이 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사치 및 부정부패(28.8%), 빈부의 차(19.6%), 상호불신(17.6%), 정치인에 대한 불신(16.3%) 등을 들고 있다. 제주도민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개발 문제(45.3%), 문화의 낙후성(24.5%), 환경보존 문제(9.7%) 등이다.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문제는 심각(심각하다 60.8%, 매우 심각 25.1%)하다가 85.9%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노력(37.4%), 실력(22.4%), 인간관계(19.2%), 인격 등(12.1%),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재력(2.2%), 가문, 배경(1.4%) 등을 생각하는 학생도 조금 있다.

8) 進路關係

신입생들의 대학 졸업후의 계획은 취직(54.9%)이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28.2%), 해외 유학(5.3%) 등 계속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도 33.5%를 보이고 있다.

직업의 선택기준은 적성과 소질을 중시하겠다(45.8%), 직업의 안정성(13.8%), 전문성(11.8%),

안정성(11.5%) 경제적인 소득(8.6%)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래의 직업으로는 교육자(16.7%), 공무원(14.0%), 회사원(11.7%), 연구원(14.0%), 등으로 전문직종에 종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54.2%)이 많으며,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도 15.0%나 되고 있다.

9) 學生生活研究所에 대한 期待

신입생들의 생활연구소를 이용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및 대인관계 상담(29.7%), 진로문제(27.2%), 적성문제(23.5%), 기타(13.7%)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진로정보 등을 다양하게 개발, 지도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고등학교때까지 타율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 왔다. 그러나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 온 이상 학생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자율인으로서의 人格도야가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당국은 앞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깊이 숙지, 학생들의 원하는 학풍조성, 시설확충 등을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며 졸업후의 취업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생활 지도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만이 그 대상이긴 하지만, 문제의 학생 지도와 함께, 전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대학 4년동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